

# 물, 자연 그리고 사람

vol.672  
2024 March



## 물, 미래를 펼치다

### FLOW

진주를 품은 남강,  
남강을 닮은 진주

### ON

가상 공간과 현실을  
넘나드는, 디지털 트윈

### HOPE

물산업의 미래,  
AI 정수장



K-water 정수장이 빅데이터와 만나  
미래형 AI 정수장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지혜의 샘이 되어  
국민 모두의 풍요로운 삶을 지켜가겠습니다.



디지털 트윈



AI 정수장



kwater\_\_official



#kwaterAI정수장 좋아요 이벤트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kwaterAI정수장을 검색하고 <#kwaterAI정수장 좋아요> 이벤트 게시물에 '좋아요'와 '응원 메시지'를 댓글로 남기면 이벤트에 자동 응모됩니다.

**참여방법** 인스타그램에서 #kwaterAI 정수장을 검색  
→ <#kwaterAI정수장 좋아요> 이벤트 게시물에 '좋아요'와 '응원 메시지'를 댓글로 남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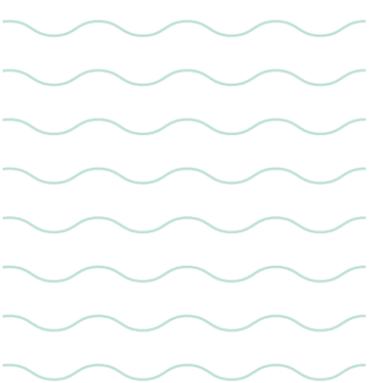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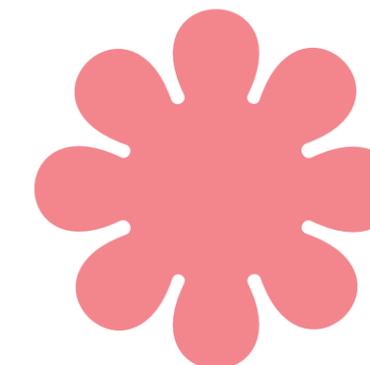
**이벤트 경품** 커피 음료 기프트콘 10명

**접수 마감일** 3월 20일

**선물 발송일** 3월 31일경



세계 물의 날



독자 참여 안내



마음상담소

마음이 힘든 고민이 있나요? 혼자 간직했던 고민에 상담이 필요하다면 질문을 보내주세요. 전문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담해드립니다. 채택 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건강물음표

물과 건강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드립니다. 평소 물과 관련된 건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이 있다면 응모해주세요. 채택 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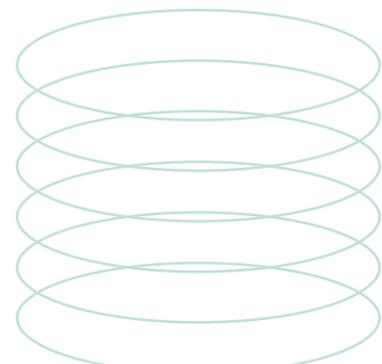
독자의 소리

사보 및 웹진을 읽고 난 뒤 여러분의 다양한 감상과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후기 및 원하시는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한국수자원공사 웹진



검색창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웹진을 검색해 보세요!





# CONTENTS

**K-water Monthly Magazine**  
2024 March Vol. 672



### COVER STORY

진주 시내를 관통하며 힘차게 흐르는 남강의 물길을 따라 봄의 전령이 찾아든 진양호, 진주성 등의 명소를 만났다. 남강에 서식하는 귀여운 수달과 함께 진주를 대표하는 진주냉면, 김시민호, 국립진주박물관, 소싸움 등의 키워드를 표현하고, 한 해의 소망을 담은 유등도 함께 띄워본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을 웹진으로 만나보세요

**창간일** 1968년 1월  
**발행일** 2024년 3월 1일  
**통권** 672호 **편집** 홍보실  
**발행처** K-water(www.kwater.or.kr)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제작·대행·인쇄** 큐라인

# FLOW

물과 함께 흐르다 **진주 편**  
물길을 따라 만난 삶과 사람, 여행



### 10 물길 따라 걷다

진주를 품은 남강  
남강을 닮은 진주

### 16 이야기로 물들다

부자의 기운이 넘치는  
승산마을 풍수 기행

### 18 물처럼 살다

추억에서 소망으로 이어지는  
남강 곁의 사람들

### 20 수(水)타벽스가 간다

남강의 진주, 수자원 운영의 달인  
남강댐지사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K-water에서 발행하는 물 전문 매거진입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 강령과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이 책에 게재된 글은 K-water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식물성 원료인 콩기름과 친환경 용지를 사용해 인쇄했습니다.

# ON

지속가능한 일상을 만든다  
가상 공간과 현실을 넘나드는, 디지털 트윈



### 26 Insight ON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가상현실 속 쌍둥이, 디지털 트윈

### 30 ONterview

세계 최초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을 실현하다  
씨엠월드(CmWorld)

### 32 ON the world

클래식과 미래 기술이  
공존하는 영국의 매력

### 36 ON전한 지구

우리 밥상에 쌀이 사라진다면?

### 38 ON 챌린지

우유팩을 모으면 휴지로 바꿀 수 있다고?  
종이팩 분리배출 ON

# HOPE

새로운 물의 시대를 열다  
물산업의 미래, AI 정수장



### 40 K-water 리포트

세계가 인정한 초격차 물 기술  
AI 정수장

### 44 K-water 포커스

물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책임 경영  
글로벌 허들 함께 넘을 True Partner

### 46 World Water Day

함께 누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  
2024 세계 물의 날

### 48 K-water News

### 50 어느 멋진 날

봄 햇살 아래 함께한 도마 만들기 클래스

### 54 마음상담소

### 56 건강물음표

### 57 이슈체크

### 58 문화산책

### 60 릴레이 챌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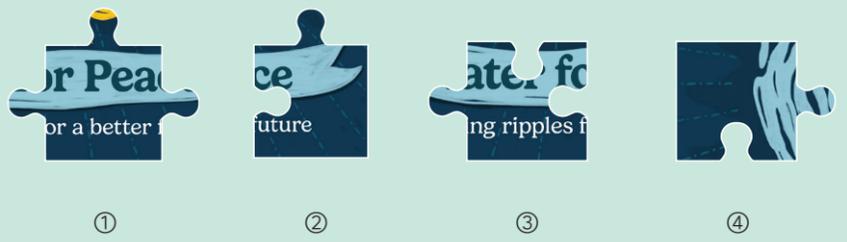
### 62 K-water SNS



QUIZ EVENT

# 3월호 사보와 함께하는 사진 퍼즐 맞추기

사진 속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맞춰주세요!



HINT. 47페이지 <World Water Day> 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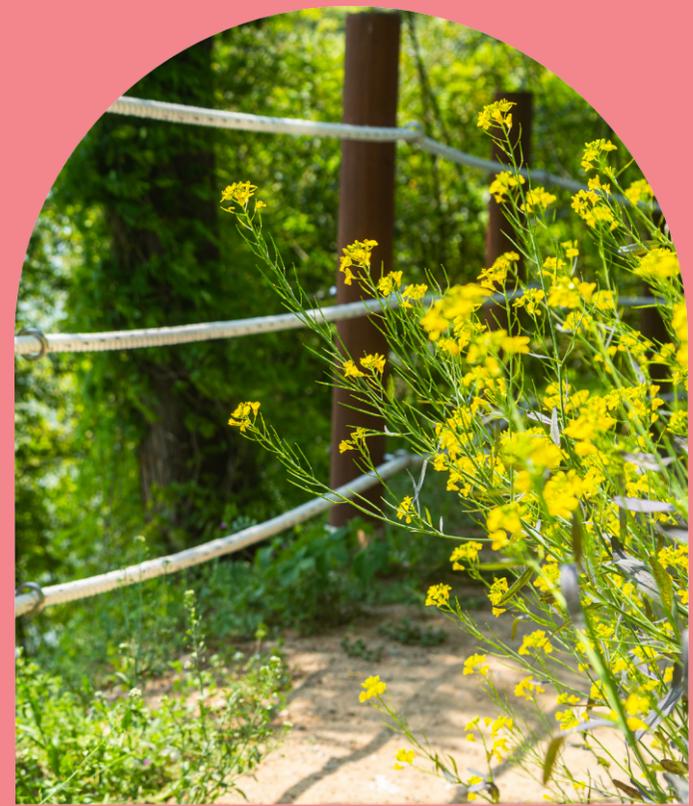
**참여 방법**

- 1 카카오톡에서 '물, 자연 그리고 사람' 검색
- 2 채널 추가
- 3 1:1 채팅방 클릭
- 4 채팅방에 정답 보내기 (정답/이름/주소/전화번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이벤트 경품 디지털 토카메라 2명 접수 마감일 3월 20일 선물 발송일 3월 31일경



CHAPTER 1  
FLOW



물과 함께 흐르다  
“하모!” 정겨운 단어가 우리를 반기고  
진주 시내를 관통하는 남강이 생동감 넘치게 굽이칩니다.  
맑은 옥빛처럼 빛나는 진주의 봄을 소개합니다.

# FLOW

# 진주를 품은 남강 남강을 닮은 진주

연둣빛 무성한 강가와 꽃비 흐드러진 호수...  
진주에는 이른 봄이 활짝 피었다.  
환한 봄 속을 걸으며 따스한 햇살과 화려한 조명이  
퍼지는 물길의 낮과 밤을 오래도록 눈에 담았다.  
아침에는 바람이 좋아 설렘고 낮에는 별이 따사로워  
행복했다. 반짝이는 남강에 스민 저녁의 기운과  
봄밤의 냄새 또한 얼마나 좋은지. 별건 동백꽃부터  
노오란 개나리까지, 봄날의 옷을 입은 진주를 걸었다.

글·사진 이시목(여행작가)

SPOT 1 ● 진양호

# 10:00

남강댐을 만들면서 생긴 인공호수다. 경호강과 덕천강이 만나는 자리에 있어  
경관이 수려하고, 주변에 남강댐물문화관을 비롯한 동물원, 진양호 전망대,  
진주시전통예술회관, 진주 전통 소싸움 경기장 등 볼거리·즐길 거리가 많아  
진주시의 관광명소가 됐다. 특히 벚꽃이 만개하는 봄날에 가볼 것을 추천한다.



**호반 따라 느릿느릿 봄 속을 걷다**

언젠가 지인이 물었다. "네게 여행을 부추기는 낭만적인 단어는 무엇이야"고. 단숨에 "연둣빛"이라고 답했다. 연둣빛은 갓 움튼 새싹들의 힘찬 에너지가 느껴지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기특한 마음이 들어 혼자 슬며시 웃게 되는 빛깔이기도 하다. 진주는 그토록 환하게 차오르는 연둣빛의 에너지를 만끽하며 걷기 좋은 곳이다. 유려하게 흐르는 남강을 끼고 있고, 도시 한쪽 끝에는 보석처럼 반짝이는 진양호를 빔어 놓아 눈이 호강하는 걸음걸음이 펼쳐진다.

봄은 땅에서 오고 가을은 하늘에서 온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봄날의 물가에 한 번이라도 서본 사람들은 안다. 봄은 물가에 가장 먼저 깃들고, 물가에서 가장 찬란하다. 여기, 진주도 그러하다. 남강에 가장 먼저 깃들고 진양호까지 이어져 환히 빛난다. 봄빛 가득한 도시의 물가는 진주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사는 일상의 공간이 되었고, 지극히 진주다운 풍경을 여럿 거느린 총

절과 풍류의 땅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진주 여행의 시발점은 진양호다. 진양호는 지리산과 덕유산에서 발원한 남강의 물줄기가 줄곧 강으로 흐르다가 진양호란 이름으로 규모를 넓힌다. 남강댐물문화관과 진양호 전망대에 오르면 크고 너른 진양호가 한눈에 보인다. 햇살 밝은 날이면 호수를 감싸안은 산자락의 연둣빛이 그림자로 내려앉아, 때때로 물빛은 파랑보다 연두에 더 가까워지기도 한다. 그러다 봄이 더욱 짙어지면 분홍빛 꽃구름도 시나브로 내려앉을 것이다. 봄날에 진양호반을 걷는다는 건 어쩌면, 연둣빛 사이 길과 벚꽃 그늘 아래를 걷는다는 뜻일지도.

진양호 진입로에서 귀곡동 승선장이나 동물원·물문화관 등으로 길을 잡으면, 보다 무성한 벚꽃들과 기록의 유혹이 넘치는 벚꽃 포인트들을 마주할 수 있다. 특히 귀곡동 승선장 일대는 푸른 물빛의 진양호와 분홍 벚꽃이 어루어져 천지를 이룬다.

**Info 1**

**진주의 3대 진미**

진주에는 3대 진미가 있다. 진주냉면과 진주비빔밥, 장어구이다. 이 중 가장 유명한 먹거리는 진주냉면이다. 북한의 평양냉면, 함흥냉면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냉면으로 꼽혔던 진주냉면은 색감이 화려하고, 맛 또한 다채롭다. 고명으로 육전이 호사스럽게 올라가 있고, 고소한 메밀면에 노란 달걀물을 입혀 부친 소고기 육전을 곁들이면 입안 가득 풍성한 감칠맛이 돈다. 진주비빔밥은 임진왜란 당시 2차 진주성 싸움을 앞두고 군사와 백성들이 소를 잡아, 밥과 나물, 육회 등을 비벼 먹은 데서 유래된다. 진주는 장어구이도 유명하다. 남강과 남해안이 접해있어 민물장어와 바닷장어를 모두 맛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SPOT 2 ◉ 남강**

**13:00**

남강을 따라 남·북 쪽에 산책로가 조성돼 있다. 진양호와 남강 일대를 다채롭게 감상하며 걷고 싶다면, 남강댐물문화관~습지원~남강대교~하모의 숲~수변산책로~물빛나루쉼터(망진나루)~남가람공원~진주대교~진주성(축석나루)~남강음악분수대~진양호 전망대 코스를 추천한다. 강의 남·북 쪽은 남강대교와 진주대교를 통해 오갈 수 있다. 3월이면 남강의 김시민호 운항이 재개된다. 김시민호를 타면 한층 운치 있는 남강을 감상할 수 있다.

**꽃처럼 터지는 봄 햇살을 등에 지고**

봄날에는 어쩐지 내딛는 걸음에 힘이 더 잘 붙는다. 온도와 습도가 적당해 몸이 한층 가볍고, 연둣빛이 주변 자락에 충만해 마음에도 별이 들기 때문일 테다. 주위를 자주 두리번거리게 되는 것도, 목을 길게 빼고 걷는 시간이 잦아지는 것도, 다 마음을 살갱게 간질이는 봄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제법 도통해진 버드나무 새싹들과 물오리의 발장구 소리가 들리고, 물과 땅의 경계에서 피어나는 들꽃들의 작은 움직임도 보인다. 소리도 없이 와글와글 수다처럼 쏟아지는 봄 햇살에 등이 따스한 기분이 드는 일이 반갑다. 봄날에 남강을 걷는다는 건 어쩌면 이 평범하고 소박한 생명들의 기척과 내 마음의 변화를 알아채는 일일지도 모르겠다.

낮은 언덕을 오르내리던 길이 평지가 되면 물줄기가 호수를 벗어나 다시 강이 되었다는 얘기가. 이곳에서부터 길은 연둣빛 버드나무 지대와 높다란 바위 벼랑을 지나 울창한 대숲에 이른다. 남강을 기준으로 진주성과 마주 보는 자리에 있는 남가람공원 대숲은 진주가 예부터 자랑하는 세 가지 절경 중 하나다. 바람이 불 때마다 사각사각 연필 깎

는 소리가 나는 대숲은 멍하니 앉아 자연의 움직임에 음미하기에 좋은 자리다. 맑은 날 산책길을 걷다 강변 잔디밭에 돛자리를 깔고 앉으면, 남강은 윤슬로 눈이 부시고 대숲은 바람에 싱그럽게 흔들린다. 가끔은 이런 풍경에 기대어 다음 시간의 한때를 살아가도 좋겠다 싶다.



▲ 진주성 맞은편 강가에 있는 대숲. 울창한 대숲 사이에 산책로가 있어 느릿느릿 걸으며 숲의 기운을 느끼기 좋다.



SPOT 3 ● 진주성

17:00

진주 제일의 볼거리로 필수 관람 포인트는 세 곳이다. 조선시대 3대 누각으로 알려진 축석루(복원)와 논개가 왜장을 끌어안고 투신했던 의암, 임진왜란 전문 박물관인 국립진주박물관이 바로 그것. 성곽을 따라 한 바퀴 휘어 돌며 산책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까딱하다간 놓칩니다, 낭만의 봄밤

봄기운 속에 한낮의 남강을 따라 걱정일랑 떨구며 걸었더니 어느새, 그림자가 길어졌다. 생기발랄한 연둣빛이 스러지는 만큼 들어차는 남강의 또 다른 빛깔들이 매혹적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진주성이 품은 '석양의 빛깔'이다. 남강 자락 낮은 벼랑에 자리한 진주성은 고려 말에 토성으로 지어져 석성으로 개축된 천년 고성이다.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 진주성의 시간은 대부분 임진왜란일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제 삶을 석양처럼 뜨겁게 살아낸' 두 인물이 불멸의 이름으로 새겨져 있다. 바로, 김시민 장군과 의녀 논개다. 김시민 장군은 임진왜란 3대 대첩의 하나인 진주성 대첩으로 혁혁한 전공을 세웠지만 이곳에서 장렬하게 전사했다. 논개는 적장을 꺼안고 의암에서 남강으로 투신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진주성을 감싸는 석양빛이 찬란한 영광처럼 느껴진다. 참 거룩한 빛깔이다.

해 저물 무렵을 훌쩍 지나면, 남강은 또 다른 모습으로 깨어난다. 진주성의 화려한 조명이 남강에 내려앉아 남강의 밤은 '낭만'으로 다가와 곁에 앉는다. 봄의 그윽한 공기와 따스한 바람, 찬란한 석양빛이 고루 섞여 겨우내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인다. 봄의 낭만으로 가득 찬 밤이 되어 다시 태어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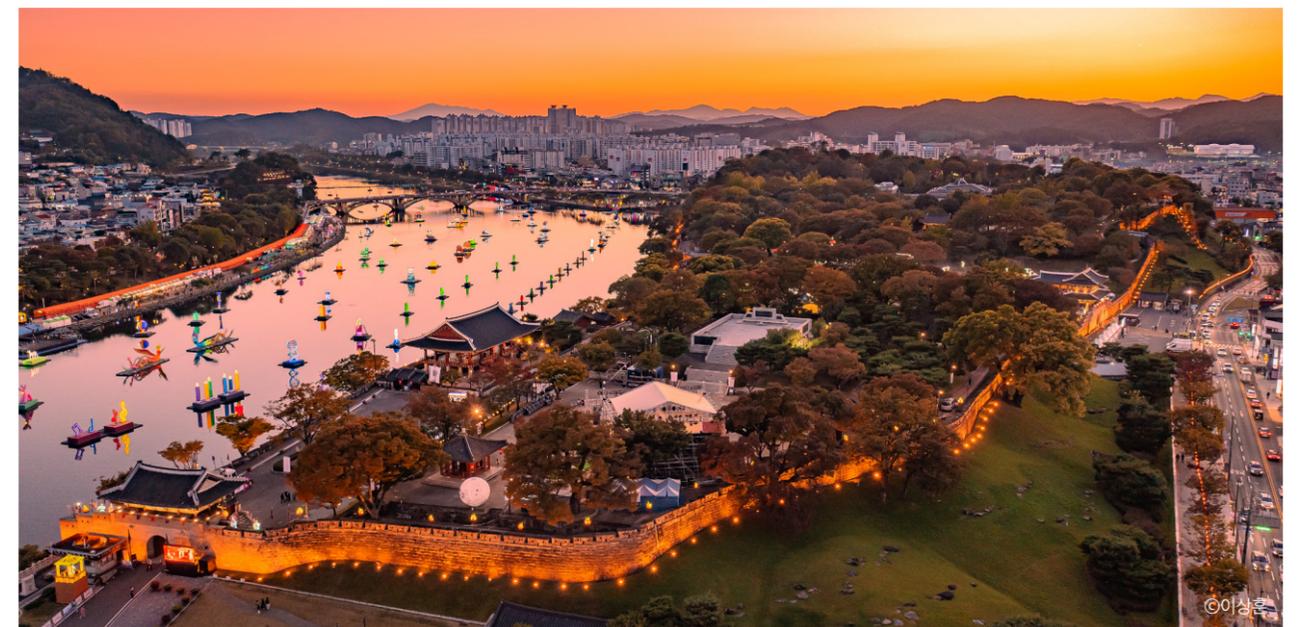
Info 2

요즘은 뭐가 유명하지?

진주시를 대표하는 캐릭터 '하모'. 진주의 진양호와 남강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인 수달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했다. 진주 곳곳 상점에서는 다양한 하모 캐릭터 굿즈를 만날 수 있다. 이 중에는 달콤한 하모샌드를 판매하는 곳도 있다. 하모샌드는 인공첨가제나 색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진주 금곡 토종 앳은뱅이밀과 문산 배 즙을 넣어 만들었다. 풍부한 버터 향과 진주의 농산물이 만나 달콤함이 배가 된다.



▼ 진주를 대표하는 남강유등축제.





부	자	의	기	운	이	넘	치	는
승	산	마	을	풍	수	기	행	

마을 출신이 온통 재벌이라 하여 풍수지리가 사이에서 성지순례지로 유명한 진주 승산마을. 과거 조선시대 한양에서도 '진주는 몰라도 승산은 안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부자 동네로 알려져 있다. 부자의 기가 흐르는 역사의 마을, 승산마을에 숨겨진 풍수지리 이야기를 알아보자.

글 김영은 사진 진주시청 참고 대한민국 구석구석, 경남문화연구원 남명학연구(제56집)

## 한국 100대 재벌 중 30여 명을 배출한 마을

진주 동쪽에 위치한 지수면의 승산마을은 일명 '부자마을'이라 불린다. LG, GS, 효성 등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계열 창업주의 생가가 모여있는 곳으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승산마을은 조선 초기인 약 600년 전, GS그룹을 일군 '김해 허 씨'의 집성촌이었다. 그리고 300년 후, LG 그룹의 '능성 구 씨'가 허 씨 집안의 사위가 되면서 두 가문의 끈끈한 유대관계가 시작되었다. 조선시대때부터 두 가문의 명성이 자자했던 터라, 이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승산마을은 부자마을로 불리기 시작했다. 당시 두 가문의 재산이 5만석에 달해, 마을 전체 재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다고 전해진다. 먼 곳 한양까지 '진주는 몰라도 승산은 안다'는 말이 이 때문에 생겨났다고 한다. 승산마을이 부자마을로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성지순례처럼 이곳에 방문하기 시작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풍수가들도 이곳을 방문하며 부자마을의 풍수지리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이후 승산마을은 부자를 낳는 명당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 승산마을 전경

## 승산마을을 둘러싼 맑은 물이 핵심

승산마을은 두 그룹의 명성 때문에 부자마을로 알려지긴 했지만, 다수의 풍수가들은 부자의 기가 흐르는 것은 풍수지리 덕분이라고 주장한다. 승산마을은 지형적으로 볼 때, 방어산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 뒤로는 심방산 줄기인 보양산이 감싸고 있다. 그리고 그 너머로 남강이 굽이치며 지나간다. 전형적인 배산임수형이다. 이와 같이 산이 감싸안은 모양새로 마을이 숨겨져 있는 덕에,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에도 기업가들의 생가가 잘 보존되었다고 전해진다.

또 하나, 승산마을이 부자 터가 된 이유에는 물이 풍부하다는 이유도 있다. 풍수 고전인 <인자수지>에는 물이 재물을 관장하며, 물이 깊고 많은 곳에서부터 부자가 많이 난다고 말하고 있다. 승산리는 산 너머 남강과 함께 지수천으로 흘러 들어오는 물이 주위에 포진되어 있다. 반면 물이 빠져나가는 수구는 좁아 재물이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들어오는 지형이라는 평이다. 풍수지리를 떠나서, 지수천이 흐르는 곳의 땅이 비옥해 농토가 확보되다 보니 이곳에서 많은 부자들이 배출됐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지수초등학교에는 승산마을 출신의 대기업 창업주들이 세웠다는 부자나무가 있다. 이곳 승산마을을 방문한다면, 지수초등학교 부자나무를 꼭 찾아가볼 것. 사진만 찍어도 부자가 된다는 속설이 있으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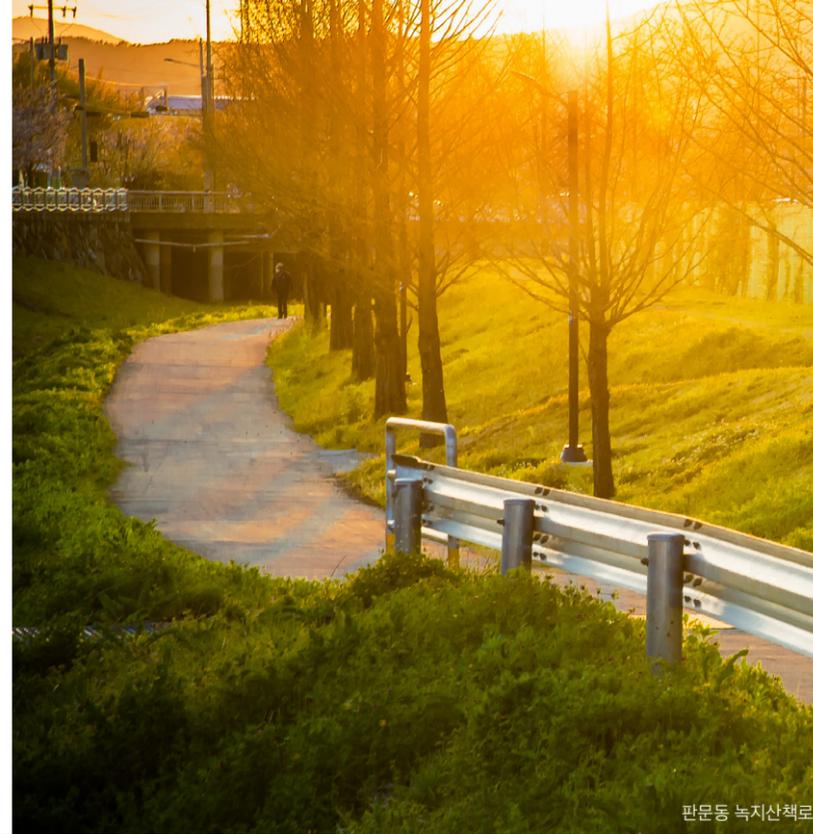


▲ 지수초등학교에는 승산마을 출신의 대기업 창업주들이 함께 심은 '부자 소나무'가 있다.

# 추억에서 소망으로 이어지는 남강 곁의 사람들

남강은 유구히 흐르며 진주를 낳고 품었다. 그래서 진주에서의 삶은 남강을 빼고 상상할 수 없다. 강과 함께 성장하며 강을 사랑하는 진주 사람들을 만났다.

글 문수민 사진 각 인터뷰이 제공



판문동 녹지산책로



로컬푸드 협동조합 진주텃밭  
소희주 이사장

지역의 농민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판로 역할을 합니다

25년 전, 단지 농사를 짓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진주시 지수면으로 귀농한 소희주 이사장. 그런 그녀의 특이한 이력이 한 영화감독 눈에 띄었다. 감독은 1년간 소희주 이사장의 우당탕 농사 일대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땅의 여자>를 2009년에 개봉했다. 영화는 부산국제영화제, 도쿄영화제, 여성영화제 등에서 많은 상을 받았다. 소희주 이사장은 농사를 지으며 가장 힘든 일은 '판매'라고 말한다. 자신의 실패와 경험을 벗 삼아, 2013년부터 지역의 농민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먹거리협동조합인 '진주텃밭'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진주텃밭과 K-water 남강댐지사가 함께 직거래장터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이후로도 남강댐지사에서 지역 농민들의 판로를 찾아주는 일을 함께 노력해주고 있어요. 덕분에 고마운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녀가 사는 지역은 지수면. 남강댐의 하류 지역이다. 집 뒤편으로는 남강이 흐른다. 농업인인 소희주 이사장에게는 탁월한 농사 입지인 것. "뜬기로는 남강댐이 생긴 이후 큰 비가 와도 홍수가 발생하지 않아, 마을주민들이 안심하며 농사를 짓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댐 밑, 강가에 농사와 삶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요. 앞으로도 자부심을 갖고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주텃밭 페이스북



진주시청 공보관실  
이상훈 주무관

아름다운 사계절을  
카메라에 담는 제가 좋아요

현재 진주시청 공보관실에서 홍보 사진 업무를 담당하는 이상훈 주무관. 사계절 내내 진주의 산과 강이 만들어낸 환상적인 자연환경을 촬영하며, 진주시를 홍보하는 일에 언제나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누구보다 아름다운 진주를 눈에 많이 담아온 그에게 남강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남강은 진주시민의 곁에서 일상을 함께하는 곳이에요. 언제나 고요하고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해주죠. 자전거 도로와 함께 산책로도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 질 무렵에는 노을빛과 강이 잘 어우러져 장관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이상훈 주무관 역시 가족들과 함께 계절마다 변하는 남강의 모습을 감상하며 자주 산책을 즐기고 있다고 말한다. 또, 진주를 대표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촬영했던 만큼 유등축제에 대한 자랑을 이어갔다.

"매년 가을에는 진주를 대표하는 남강유등축제가 열립니다. 축제가 더 빛날 수 있도록 남강의 적정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남강댐에서 노력해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붉은 노을과 유등이 강물에 비친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봄에 방문하신다면 금호지를 추천하고 싶어요. 금호지 둘레길을 따라 걸으며 벚꽃을 만끽해보세요."



인테리어 시공사  
박상목 대표

온화한 날씨엔  
저에게 늘 행운 같아요!

박상목 대표는 진주시 판문동에서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진주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꼭 진주에 거주하고 있는 토박이다.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직업 특성상 온화한 진주 날씨는 그에게 늘 행운처럼 느껴졌다.

"어린 시절 남강에서 수영도 하고 물고기도 잡으며 자랐죠. 그래서인지 남강은 저의 추억이 가득한 곳입니다. 출퇴근길마다 남강을 바라보는 것은 저의 일상이죠. 아마도 진주 시민 전부 저와 같이 생각할 것 같아요. 남강이 뿜어내는 물안개나 일출, 일몰 광경을 보고 있노라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진주에서 40년 이상을 살아왔지만 홍수 등의 문제로 일에 차질이 있었던 적은 거의 없었다는 박상목 대표. 그저 진주에서의 일상이 평온함에 감사할 뿐이라며, 이번 주말에도 아이들과 함께 물문화관과 노을공원 등을 누리며 남강 곳곳의 정취를 만끽할 계획이라 전했다.





# 남강의 진주, 수자원 운영의 달인 남강댐지사

호반의 물안개 속 저 멀리 지리산 자락이 한눈에 담기고, 해 질 녘이면 황홀한 주홍빛으로 가득 물드는 진양호. 주변으로는 호수와 댐 풍경을 벗 삼은 이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는다. 그곳에 남강댐지사가 있다. 우리나라 최대 다우지역 중 하나인 진주의 안녕을 책임지는 남강댐지사 사람들을 만났다.

글 김영은 사진 김은주 영상 이승구



얼마를 번째 배달지 남강댐지사

###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남강댐지사

진주는 연평균 강수량이 1,518mm로, 지리산과 남덕유산에 발원지로 하는 다우지역에 속한다. 진주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남강은 유역면적이 넓고(2,285km²), 상류에서 하류에 이르는 강바닥의 기울기가 급한 편에 속한다. 이러한 이유로 남강댐이 있기 전까지는 비가 오면 진주, 의령, 함안 지역에 걸쳐 홍수 피해가 잇따르곤 했다. 1970년 구댐이 준공된 이후, 다시 1989년에 이어진 대규모 보강 공사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남강댐은 우리나라에서 수문을 가장 많이 여는 곳이기도 하다. 지형적 특성으로 비가 많이 내리다보니 진주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남강댐지사 직원들은 잦은 비상근무도 마다하지 않는다.

남강댐지사는 시민안전을 위한 역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역할도 겸하고 있다. 작년에는 훼손된 저수구역에 '남강댐 그린 촉촉 공유 팜'을 조성하고, 수확물을 판매기부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도 했다. 또한, 매년 남강댐 노을공원 일원에서 참여형 환경축제 그린촉촉 페스티벌 등을 개최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있다.

남강댐 물문화관은 도심과 인접해 시민들이 자주 찾는 휴식 공간 중 하나이다. 물문화관 앞에는 다양한 포토존이 있는데, 그 중 '사랑 열차 룬롱이 눈길'을 끈다. 1971년에 설치되어 48년간 사용된 수차발전기를 새롭게 페인팅해 만든 조형물로 규모가 상당하다. 남강댐이 다목적댐으로서 생활·공업용수, 농업용수 등 각종 용수 공급 외에도 친환경적인 수력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만큼, 의미있는 조형물이니 이곳에서 포토제닉한 인증샷을 놓치지 말 것.



Thank you 🍷



### 반짝이는 진주(晉州) 속 진주(珍珠)

비 소식이 이어지던 2월의 어느 날, 수(水)타벅스 차량이 도착하기 전까지 비구름이 가득했던 진주. 그러나 수(水)타벅스 차량이 도착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해가 반짝 뜨기 시작했다. 이날 수(水)타벅스가 도착한 곳은 남강댐지사 바로 옆에 자리한 남강댐 물문화관이다. 물문화관은 진주 시내와 인접해 있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가볍게 산책하며 진양호를 보려는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다. 덕분에 이날의 수(水)타벅스는 남강댐지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물문화관을 찾는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여기 남강댐이 노을 맛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산능성을 타고 붉게 떠오르는 노을이 그야말로 장관이에요.” 윤미영 차장의 남강댐 자랑이 이어졌다. “작년에 개소한 물문화관 전망테크와 노을공원은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 공간이자 진주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답니다.”

이날 수(水)타벅스가 제공한 간식은 통통한 옛날 핫도그다. 현장에서 즉석으로 기름에 튀겨내어 고소한 설탕 옷을 입은 핫도그에 취향껏 소스를 뿌려본다. 각자의 입맛에 맞는 음료와 함께 핫도그를 즐기며 수다가 한창이다. 그리고 롤링페이퍼에 다시 한번 새겨본 올해의 다짐을 보며 서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핫도그와 음료를 넉넉히 준비한 덕에 오가는 어린아이들의 손에도 하나씩 쥐어주며 웃음꽃이 피던 남강댐지사 직원들. 어떤 행사냐며 묻는 방문객들의 질문에 한윤기 과장이 남강댐과 진양호에 대해 친절히 설명을 해주기도 했다. 화기에애한 시간이 아쉬울만큼 진양호는 붉게 떠오를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수(水)타벅스가 마무리되었다. 비 온 뒤 나타난 맑은 하늘처럼, 지난 노고의 시간들을 뒤로 하고 'K-water의 진주'로서 반짝이는 남강댐지사가 되기를 응원한다. 水

Fun!



진주 최고의 명물!



남강댐지사!

수(水)타벅스가 와서 직원들의 얼굴에 꽃이 피었습니다!



남강댐지사 관리부 정영근 과장

최대 홍수기 비상근무를 매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우리 남강댐지사 직원 여러분을 위해 '수(水)타벅스가 간다' 이벤트를 신청했는데요. 수(水)타벅스가 남강댐 물문화관에 방문하면서 직원들 얼굴에 꽃이 피었네요. 방문객분들께도 커피와 간식을 제공할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하고요. 특히 이영목 지사장님께서 올해 부임하신 뒤 처음으로 전 직원이 한데 모일 수 있는 자리여서 뿌듯했습니다. 신청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웃음)

벌써 3월이 다가오는데, 우리 직원분들 모두 마음먹은 대로 잘 풀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수(水)타벅스 많이 신청해 주세요!

#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다시 새겨보는 남강댐지사 직원들의 2024년 다짐은?

남강댐지사

물림페이지



\*남강댐지사 직원들이 손수 적은 올해의 다짐입니다.



## 수(水)타벅스가 간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수(水)타벅스가 간다' 영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 CHAPTER 2 ON

### 지속가능한 일상을 만든다

가상공간 속 쌍둥이 세상, 디지털 트윈 기술이 우리의 세상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재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케 하는 디지털 트윈, 더욱 안전한 미래를 가져올 디지털 트윈 기술에 주목해 봅니다.

# ON

#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가상현실 속 쌍둥이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은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공간을 컴퓨터 안에 동일하게 구현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최적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술이다.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고 문제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 여러 산업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과연 현실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 함께 알아보자.

글 편집실 자료 K-w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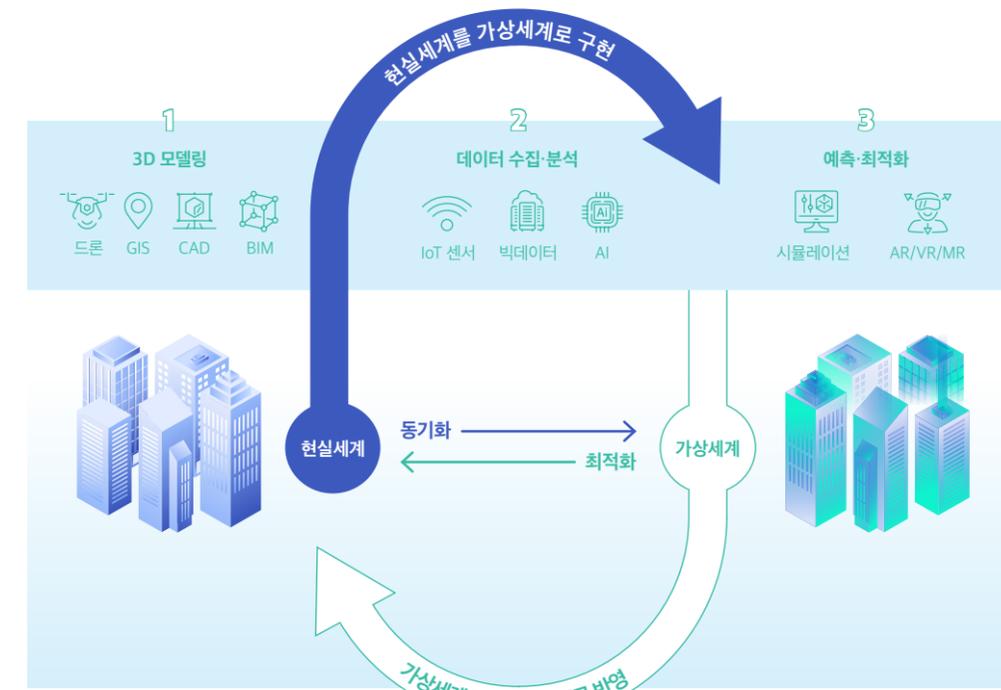
최근 지속되는 온난화와 생태계 파괴로 지구는 몸살을 앓았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여 년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는 그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자연재해는 예측하기 어렵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그로 인한 피해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극심한 기후변화로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높아지자 사람들은 문제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기술 가운데 핵심 KEY로 떠오르고 있다. 디지털 트윈은 온라인 가상공간에 디지털 복제본을 만들고 시뮬레이션, 러신머닝, 추론 등을 통해 최적의 의사결정을 돕는다. 다시 말해, 가상공간에 현실과 똑같은 쌍둥이를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모의실험할 수 있는 기술이다. 시간, 공간, 안전,

비용 등의 제약으로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거나 할 수 없는 실험을 가상으로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을 기후위기 대응에 적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 실제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구의 디지털 트윈을 개발하는 'Destination Earth(DestinE)'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2030년까지 단기적인 날씨와 장기적인 기후변화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시뮬레이션이 완성되면 기온이 상승할 때 동물의 이동 패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바다가 따뜻해지면 자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시각화하여 나타낼 수 있다. 2030년에는 분야별 디지털 트윈을 하나의 완전체로 통합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디지털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디지털 트윈 기술 개념도



디지털 트윈 기술의 어제와 오늘

디지털 트윈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 이미 1960년대 NASA가 아폴로 13호 우주선을 발사할 때 유사한 기술을 사용했다. 우주선을 시뮬레이션화하여 지상의 엔지니어들이 우주비행사와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 그렇다면 이쯤에서 시뮬레이션과 디지털 트윈의 차이점이 궁금해진다. 시뮬레이션은 하나의 특정 프로세스를 연구해 쌓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반면, 디지털 트윈은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기술이 더해져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업데이트된다. 디지털 트윈은 정보가 양방향으로 공유되며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뮬레이션 기술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기술 덕분에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며, 더욱 정밀하고 효율적인 제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디지털 트윈은 제조업, 에너지, 건설, 물관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된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담당하는 공공부문에서 디지털 트윈의 효율적이고 지능적인 서비스가 빛을 발하고 있다. 지난 2018년 LX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전주시와 디지털 트윈 표준 모델을 구축하여 도시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행정 서비스 모델을 구현했다. 또한 대전시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도심 곳곳의 실내·외를



3차원 공간으로 구현한 '소방안전 서비스'를 선보였다. 해당 서비스는 골든타임 5분 이내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도로 환경 분석으로 최단 시간 출동을 제시한다. 최근에는 디지털 트윈을 의료 분야로 확장한 '인체 디지털 트윈'의 개념도 등장했다. 사람의 몸을 모델링해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치료 프로세스와 임상 시뮬레이션을 통한 신약 개발 등이 가능해졌다.



K-water 물관리종합상황실

K-water 또한 기후위기에 따른 물관리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적인 물관리 디지털 전환을 선포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Digital GARAM+, 스마트 댐 안전관리, AI 정수장 등을 운영 중인 것. 2021년부터 도입된 Digital GARAM+(디지털 가람플러스)는 세계 최초로 구현해낸 디지털 트윈 기반의 물관리 플랫폼이다. 지형·하천·댐 등의 물리적 대상을 가상의 공간에 동일하게 만들고, 기상·수문·수질 등 다양한 조건을 입력해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댐·하천 수위 변화와 피해 발생 여부 등 파급효과를 예측하고, 홍수기 강우 예보 시 댐 운영 의사결정을 위해 활용된다. 현재는 섬진강 유역을 시작으로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유역 등 5대강 전역을 포함한 전국도로 확대되어 적용 중이다.

K-water는 Digital GARAM+의 우수성을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네이버와 공동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디지털 플랫폼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주요 5대 도시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 중, K-water는 제2

의 도시인 제다시의 홍수대응 디지털 트윈 부문에 참여한다.

또한 K-water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댐 시설 안전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실시간 댐 지능형 관측을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한 후, 무인기로 점검한 사진과 영상을 저장·관리·분석하여 댐과 부속 시설을 더욱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사업이다. 특히 디지털 트윈 기술 도입으로 지진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댐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트윈 기술의 도입은 신속하고 정확한 문제 예측 및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들이 더욱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K-water는 혁신기술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물관리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K-water 물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Q

디지털 트윈 기술이 K-water에서 어떤 절차로 운영되며,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지 알려주세요!

A

K-water가 세계 최초로 구축한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인 'Digital GARAM+'는 작년에 5대강 유역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홍수기 시범운영을 마쳤습니다. 올해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홍수기 전에는 플랫폼을 체험하는 사내 리뷰어를 운영하고,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홍수대응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 단계로 플랫폼의 서버 인프라와 성능을 점검하고, 모의훈련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홍수기 중에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기술지원을 제공합니다. 이후에는 실질적인 기술 활용성과 안정성을 검증하고, 플랫폼 개선사항을 발굴합니다.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플랫폼 만족도와 개선사항을 조사하고, 계속해서 기능을 고도화시킬 예정입니다. K-water는 홍수관리뿐 아니라 가뭄, 물순환 등 다른 분야로도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K-water의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물관리 혁신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운영처 디지털물관리부 조영식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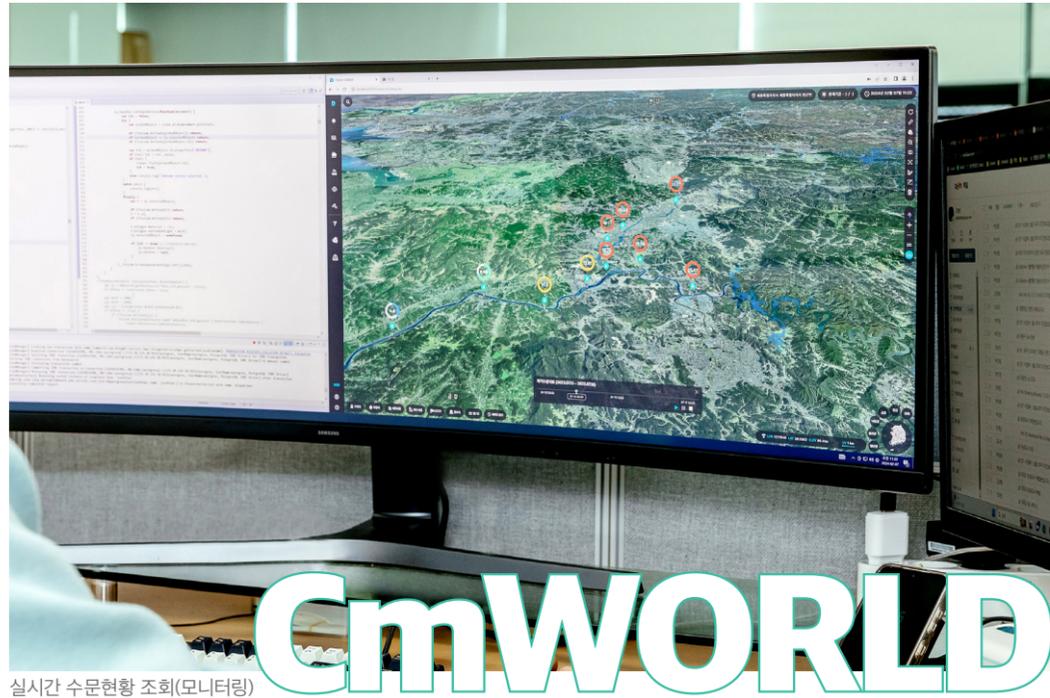


# 세계 최초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을 실현하다

## 씨엠월드(CmWorld)

세계 최초로 댐 유역 물관리에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도입한 K-water. 씨엠월드(CmWorld)는 K-water의 협력업체로서, 체계적인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을 통해 최적의 물관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술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글 김영은 사진 김은주



실시간 수문현황 조회(모니터링)

**Q** 씨엠월드는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는 회사인가요?

씨엠월드는 2003년 창사 이래 20여 년간 공간정보(Geospatial Information) 분야 SW개발이라는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특히 3차원 GIS(Geospatial Information System) 및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SW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K-water, 환경부 그리고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국내 최고 수준의 물관리 플랫폼, BIM 기반 실시간 시설물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씨엠월드와 K-water가 협업 중인 디지털 트윈 사업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씨엠월드는 K-water와 함께 '5대강 유역 디지털 트윈 기반 물관리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확산 사업인 '기타 유역 디지털 트윈 기반 물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댐 안전을 위한 디지털 트윈 구축'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수자원 안전 및 관리 분야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해 나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 물관리 업무는 전국 댐·유역·하천에서 체계적인 물관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술로서,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 호우, 홍수, 극한 가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물관리 기술입니다. 모니터링과 시뮬레이션 예측을 통해 직접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실제 상황처럼 사례를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해 물 관련 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Q** K-water와 함께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과정, 어떠셨나요?

사업 초기에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서비스 개발에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이를 만회하기 위해 팀원들 전체가 밤샘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당시 K-water 담당자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K-water 담당자분들이 직접 분사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개발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어요. 이러한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기에, 이 자리를 빌려 담당자분들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구축·운영 중인 물관리 플랫폼 서비스를 보고 많은 분들이 칭찬해주시고, 더 나아가 기술 협업을 요청하고 있어요. 'K-water와 협업하길 잘했다'는 생각과 함께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트렌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Q** 앞으로 물관리 디지털 트윈 사업이 어떻게 발전될지 궁금합니다.

올해 디지털 트윈 기반 물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 개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완료 후에는 K-water를 대표하는 물관리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수요처에 서비스가 공유됩니다. 현장의 실무자 및 내부 관리자가 동일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며, 체계적인 물관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특특히 역할을 해낼 것으로 생각해요. 향후에는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하여 분석 정확도와 신속성을 향상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리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갈 예정입니다.

**Q** 씨엠월드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 해주세요.

현재 씨엠월드는 K-water, 네이버와 사우디아라비아 스마트시티 전환을 위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전면적인 도시 계획과 홍수 예측 등에 기술을 적용시킬 예정입니다. 전 세계는 미래 기술 전쟁의 한 가운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매일 쏟아지는 신기술과 트렌드 속에서 씨엠월드는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 기술을 접목해 사용자의 경험을 확장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



(뒷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박가연 대리, 박성원 부장, 김경태 사원, 한진만 사원, 최재인 사원, 김나연 사원, 안준표 대리, 김경빈 대리, 편말순 전무, 유서영 사원



# 클래식과 미래 기술이 공존하는 영국의 매력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로 이루어진 영국은 셰익스피어, 비틀스의 고향이자 영국 왕실 고유의 역사와 개성을 지니고 있다. 드넓은 평야와 온화한 기후로 목가적인 풍경에 탈피하고,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지털 트윈 전략을 추진하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나가고 있다.

글 우지경(여행 작가) 사진 편집실 참고 국토지리정보원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가치 창출 영국의 디지털 트윈 정책

영국은 데이터 공학과 AI를 활용한 세계 디지털 혁신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단위의 디지털 트윈 전략을 추진 중이다. 2015년 디지털빌트 브리튼 센터(Center for Digital Built Britain : CDBB)를 설립하여, 영국이 국가 인프라와 건설 분야의 디지털 기술개발에서 세계 최고의 위치를 선점하는 것을 목표로 한 디지털 빌트 브리튼 전략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 디지털 트윈 정책의 주요 비전을 자연과 건설 환경의 개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삶의 질 확보, 웰빙 구현, 산업 경쟁력 확보 및 생산성 향상으로 정하고, 국가 디지털 트윈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인 제미니 원칙(Gemini Principles)을 제정하였다.

제미니 원칙은 첫째, 모든 디지털 트윈 구축에는 분명한 목적(purpose)이 있어야 한다. 둘째, 신뢰(trust)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효과적으로 기능(function)해야 한다는 3가지 상위 원칙과 9가지 세부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이렇듯 영국은 다른 디지털 트윈 선도 국가들과는 다르게 플랫폼을 바로 구축하기보다는 디지털 트윈 실현에 필요한 원칙과 주요 지침을 제시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 특별하다.



1 타이타닉 벨파스트 박물관

## 타이타닉의 도시 북아일랜드 속 벨파스트

1 야경 명소로 꼽히는 벨파스트 시청

영국의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섬의 북동쪽에 위치한 영국의 일부로, 국가, 지방, 지역 등 다양하게 묘사된다. 도서 국가인 영국과 아일랜드의 유일한 국경인 만큼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특징.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자연을 여행하는 것도 좋지만, 북아일랜드 여행은 수도 벨파스트(Belfast)를 빼놓을 수 없다.

과거 벨파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가 있던 도시였다.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도 이곳에서 탄생했다. 이러한 이유로 '타이타닉호 침몰 100주년 기념' 박물관인 '타이타닉 벨파스트'가 랜드마크로 크게 자리하고 있다.

박물관은 벨파스트에서 가장 크고 현대적인 건물 중 하나다. 알루미늄 패널과 통유리로 빙산 형상화한 외관이 그 자체만으로 풍성한 볼거리다. 4층에서부터 1층으로 내려오며 벨파스트라는 도시의 역사와 타이타닉 호의 탄생 배경, 침몰 과정, 침몰 이후 생존자의 이야기 등 다채로운 이야기를 담은 전시 패널과 영상 자료를 관람할 수 있다.

1 벨파스트



노팅힐 속 파스텔톤의 건물들



영국의 심장

그레이터 런던

#1

세계 3대 도시(런던, 뉴욕, 도쿄)로 꼽히는 그레이터 런던. 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의 중심지이며, 유럽 여행의 허브 역할을 하는 영국 최고의 관광지다.

“런던이 지겨워진 사람은 인생이 지겨워진 사람이다”라는 영국 시인 새뮤얼 존슨의 말처럼 런던은 지루할 틈이 없다. 미술, 뮤지컬, 펍, 축구, 공원 등 다양한 테마를 간직한 도시이기 때문.

그중 런던을 대표하는 아이콘 중 하나인 대관람차 런던 아이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풍경은 가히 황홀하다. 템즈강을 사이에 두고 빅벤, 세인트 폴 대성당과 같은 역사적인 건물과 더 샤프드, 20 펜처치 스트리트 같은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풍경이 펼쳐진다. 하늘을 찌를 듯 뾰족한 유리 피라미드 더 샤프드는 런던 스카이라인을 수놓는 파격적인 건물로 꼽힌다. 내부에는 호텔과 레스토랑, 72층 전망대가 있다. 아래보다 윗부분이 넓고 휘어진 모습이 무전기과 비슷하다고 해서 워키토키라 불리는 20 펜처치 스트리트에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하늘 정원 스카이가든이 있어 전망과 싱그러운 정원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3월에 영국을 방문한다면 알록달록한 파스텔톤 건물과 꽃으로 거리를 수놓는 노팅힐 여행을 추천한다. 본래는 조용한 주택가이지만 영화 <노팅힐>을 통해 명성을 얻게 되었다. 수려한 유럽풍 건물 사이사이로 수놓은 꽃들을 만끽하는 것이 그야말로 장관이다.

London

런던 아이



Wales

영국 안의 또 다른 나라

웨일스

#2

웨일스는 그림 같은 고성, 험준한 해안선, 아름다운 해안, 울창한 계곡이 한 폭의 풍경을 이룬다. 웨일스의 수도인 카디프에서 아일랜드로 넘어가는 관문 홀리헤드까지, 웨일스의 매력은 무궁무진하다. 영국에서 가장 발달한 항구도시인 수도 카디프(Cardiff)에서 웨일스 여행을 시작해 보자. 카디프는 카디프 국립 박물관, 웨일스 성 등 볼거리가 넘쳐난다. 카디프 센트럴 광장에는 흑인 여성 '베티 캠벨'의 동상이 유명하다. 최초로 흑인 여성 교장이었던 그녀는 다문화의 가치를 설파하고자 노력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카디프는 작은 항구도시였지만, 19세기에 이르러 세계 제일의 석탄 수출항으로 성장했다. 지금은 당시의 영광이 사라지고 레스토랑과 카페, 대관람차가 들어서 관광지로 재탄생했다. 카디프에서 자동차로 1시간 반쯤 달리면 세계 최초의 책마을인 헤이온 와이(Hay on Wye)에 다다른다.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 서점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책으로 만든 담장도 볼거리 중 하나다. 웨일스 콘위에는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한 고성 하나 있다. 과거 웨일스 왕국을 점령한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1세가 지은 성으로, 700년 동안 한 자리를 지켜왔다. 이 밖에도 웨일스에는 지중해풍의 정원 마을인 포트메리온(Portmerion), 서북쪽에 위치한 도시인 뱅거(Bangor) 등이 있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의 성



Scotland

거부할 수 없는 두 도시의 매력

스코틀랜드

#3

스코틀랜드는 옛 스코틀랜드 왕국의 수도 겸 제2의 도시인 에든버러와 최대 도시인 글래스고가 있다. 증기 기관 등 영국을 대표하는 발명품이 이곳 출신들에 의해 발명되면서 스코틀랜드는 명인의 고장으로 유명세를 탔다.

에든버러는 옛 왕국의 수도인만큼 견고한 요새인 에든버러성이 관광객을 맞이한다. 에든버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인 이곳에 오르면 세계 각국에서 모인 여행객들을 볼 수 있고, 종종 버스킹을 하는 이들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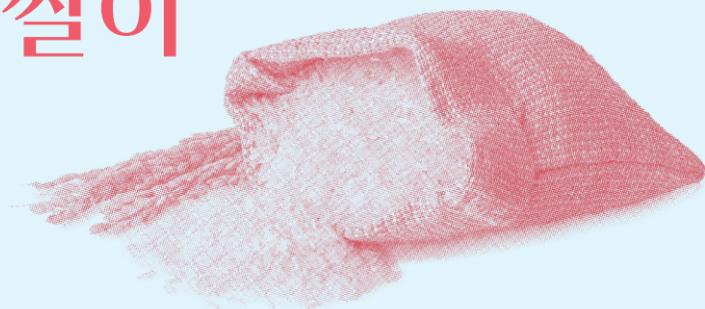
글래스고는 '그린시티'로 불린다. 스무 개가 넘는 공원과 '스코틀랜드 호수의 여왕'이라 불리는 로몬드 호수가 글래스고에 있기 때문. 남북으로 길게 뻗은 호수 위로 고성을 품은 섬이 떠 있고, 연안을 따라 작은 마을이 점점 이어지는 모습이 아름다워 '스코틀랜드 호수의 여왕'이라는 명칭을 얻었다. 水

항구도시 카디프



# 우리 밥상에 **쌀**이 사라진다면?

글 박상욱 JTBC 기자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몬순 기후 지역은 오랜 기간 이어진 특유의 기온·강수 패턴으로 농업을 일구고, 쌀을 주식으로 살아왔습니다. 라면이나 빵 등 다양한 식사 대용 음식이 많지만, 한국인은 밥심이라고 하죠. 하지만, 오늘날 기후변화는 이러한 패턴을 뒤바꾸며 우리의 밥상 및 식량 안보를 위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역대 최장기간 가뭄이 이어진 2022년을 기억하시나요? 남부지방 곳곳에선 공업용수뿐 아니라 생활용수까지 바싹 말라붙었습니다. 기온은 오르는데,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비나 눈이 줄면서 온갖 작물이 누렇게 익어가는 것을 넘어 검붉게 타들어 갈 지경이었습니다. 당장 거둬야 할 쌀 수급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처지에 빠졌고요.

‘아니, 남는 쌀이 많아서 양곡법을 두고 한바탕 논란이 일었는데, 무슨 쌀 수급 위기냐’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불과 10년 후면 이런 양곡법 논란을 ‘배부른 소리하던 시절’로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현재 눈에 심은 벼 가운데 쌀알이 열리는 벼는 92.2% 정도입니다. 그렇게 열린 쌀알 가운데 ‘정상립’이라고 불리는 상품성 있는 쌀알의 비중은 74.1%고요. 그런데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살아간다면(RCP 8.5 시나리오), 2050년 쌀알이 열리는 벼는 51%로 줄고, 그렇게 열린 쌀알 가운데 정상립의 비중은 46.5%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말라 죽거나, 타 죽거나, 기존보다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쌀알이 과숙성하면서 쌀의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그간 단위 면적당 쌀 생산량은 크게 늘었

## 쌀 생산성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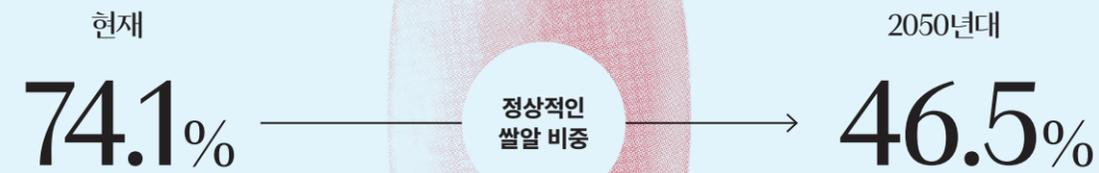
현재

92.2%

쌀알이 열리는 벼

2050년대

51%



출처: 국립식량과학원

습니다. 1970년대, 전국 곳곳에서 논농사를 지어도 쌀을 370kg/10a(에이커)밖에 생산하지 못해 전국적으로 쌀 수요를 조절하기 위한 각종 노력이 잇따랐습니다. 밥 대신 라면과 같은 면식을 권장하기도 했던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러했던 생산성이 1990년대에 들어 473kg/10a로 급증했습니다. 품종을 개량하고, 농법을 개선한 덕분에 농지 면적이 줄어들어도 절대적인 생산량은 증가했고요.

**하지만 기후변화로 이 생산성은 2060년대 368kg/10a로 줄어들 것이라는 게 국립식량과학원의 전망입니다. 쌀 걱정을 하던 1970년대보다도 생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1970년대보다 농지 면적 자체도 적다 보니, 전체 생산량은 1970년대보다도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밥만 문제일까요. 고기도 문제입니다. 높아진 기온은 사람 뿐만 아니라 가축에게도 심각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당장 2023년 7~8월 사이에만 65만여 마리의 가축이 폭염으로 인해 폐사했습니다. 동남아 지역의 스콜을 연상케 하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7월, 폭우로 인해 폐사한 가축만도 80만 마리에 달합니다. 폭염과 갑작스러운 호우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로 인한 감염병 증가도 문제입니다.** 기후변화는 국내에서 서식하는 해충이나 바이러스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일 배송이 디폴트인 오늘의 엄청난 유통망 발달은 이런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의 리스크로 작용하기도 하고요. 또한, 그 감염병이 가축 간의 감염에 그치지 않고 인수 공통 감염으로 이어지게 되면, 이는 가축의 안전뿐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보건 위기로도 이어집니다.

‘육고기’뿐 아니라 ‘물고기’도 위기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전 지구의 해수온이 높아지고 있는데, 한반도 인근 해역의 해수온 상승은 전 지구 평균을 상회합니다. 그 결과,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1998년 130.8만 톤이던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2022년 88.7만 톤으로, 원양어업 생산량은 72.3만 톤에서 40만 톤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 기간 전체 어업생산량은 283.5만 톤에서 360.4만 톤으로 도리어 늘었는데, 이는 양식의 증가 덕분이었죠. 실제 자연에서 잡히는 물고기의 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농지 면적은 꾸준히 줄어왔으나 생산성을 높여 쌀이 풍부해진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당장은 인간의 노력으로 현시점의 문제를 가리고 있지만, 이 또한 온난화가 지속되면 양식조차 그 생산량이 줄어들거나, 양식 확대로 연근해어업 생산량 감소를 만회하기 어려워지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말처럼 지구 온난화의 시대(Era of Global Warming)가 끝나고, 끓는 지구의 시대(Era of Global Boiling)가 도래한 오늘날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안보의 위기는 망고나 바나나, 키위처럼 더운 나라에서 나던 작물이 우리나라 전역에서 생산되는 재배지 변동 수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차림 모습이 변화하는 것을 넘어, 익숙했던 반찬이나 밥을 먹을 수 없는 ‘밥상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가 바로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

# 우유팩을 모으면 휴지로 바꿀 수 있다고?



우유팩 등 종이팩은 양질의 재활용 자원이지만 잘못된 분리배출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올바른 분리배출로 종이팩에 새로운 정의를 더하는 '종이팩 분리배출 ON' 챌린지에 동참해보자.

글 전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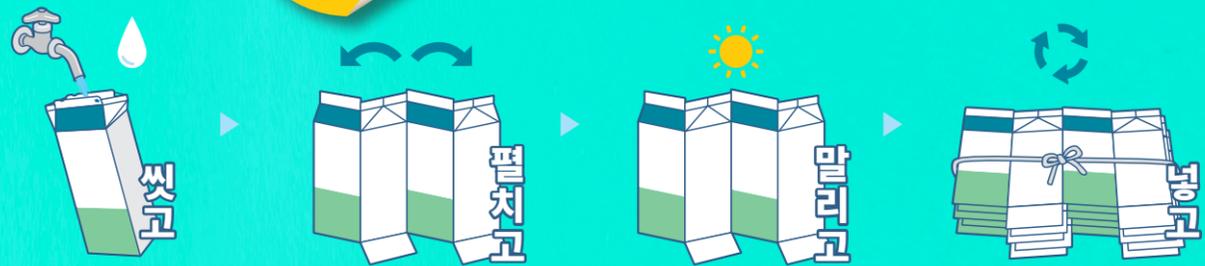
평소 우유를 마시고 난 뒤 어떻게 분리배출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대부분 종이로 분리배출한다. 하지만 우유팩은 '종이'로 분류해서는 안 되고, '종이팩'으로 분리배출해야 한다. 일반 폐지 등은 종이로 분류하지만, 우유팩과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겉면은 종이, 안쪽은 코팅재나 알루미늄 재질로 복합적인 형태)은 별도로 '종이팩'으로 분리배출해야 한다. 종이팩이 일반 폐지와 함께 배출되는 탓에, 우유팩 100개 중 15개 정도만이 재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천연 펄프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제대로 분리배출 된 종이팩은 휴지로 재탄생이 가능하다.

### Tip

'오늘의 분리수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우리 동네 IoT 스마트 종이팩 수거함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종이팩 수거함을 이용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포인트는 우유 또는 생수와 교환할 수 있다.(지자체 정책에 따라 상이함) \*

종이팩은 종이팩끼리! 일반폐지와 분리하기!

올바른 종이팩 분리배출법



### 종이팩의 놀라운 재탄생, 종이팩 분리배출 ON

위의 'ON 챌린지' 내용을 참고해 일상 속 올바른 종이팩 분리배출을 실천하고, 환경 보호에 동참해 보세요. 61페이지의 토퍼를 이용한 인증샷을 통해 실천 내용을 찍어서 보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분에게 문화상품권 1만 원권을 보내드립니다.

- 이벤트 경품** 문화상품권 1만 원권 10명
- 참여 방법** QR코드를 통해 인증샷 남기기
- 접수 마감일** 3월 20일
- 선물 발송일** 3월 31일경



## CHAPTER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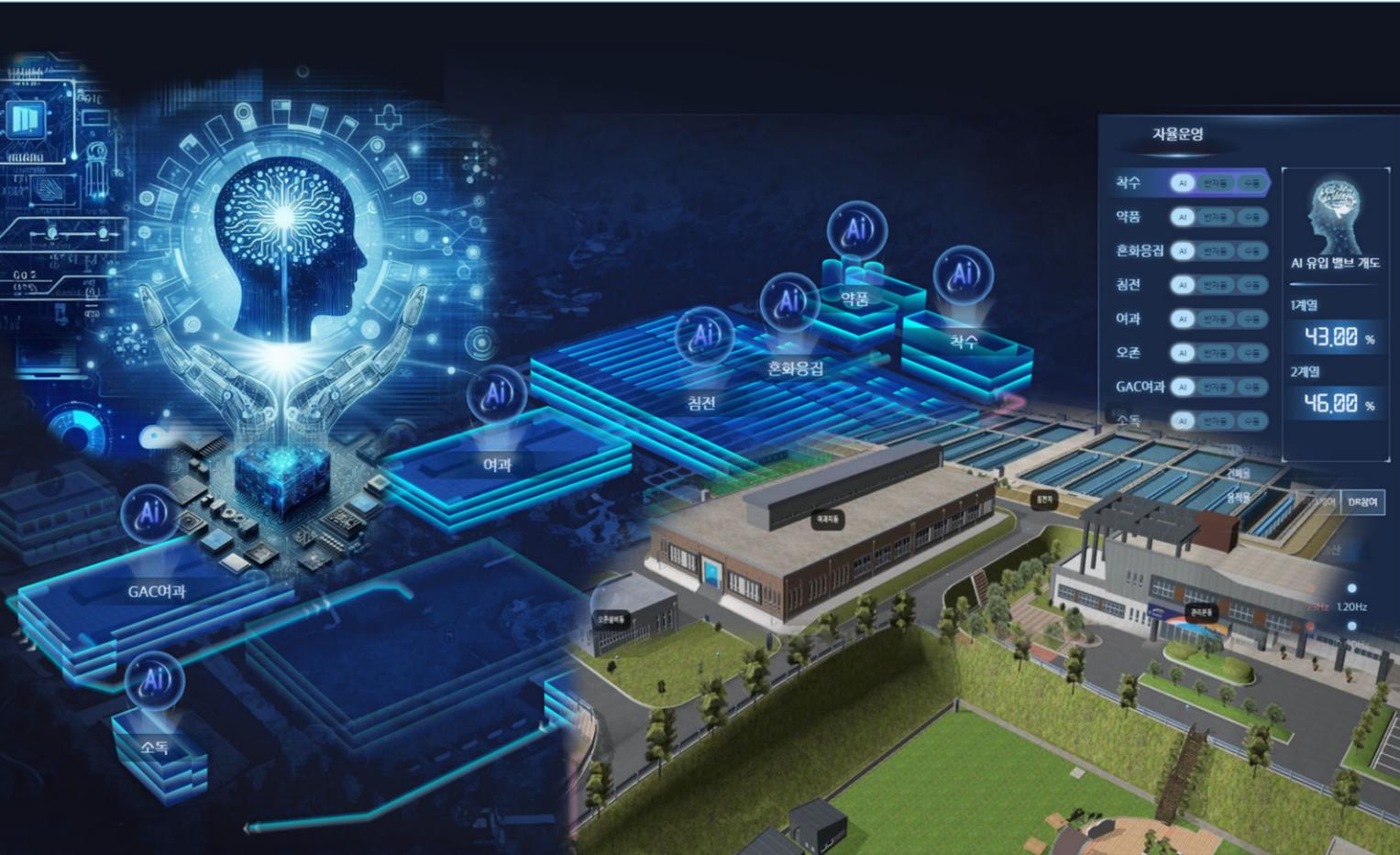
### HOPE



### 새로운 물의 시대를 열다

K-water는 디지털 기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형 AI 정수장을 운영하며 언제 어디서든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 HOPE



## 세계가 인정한 초격차 물 기술 AI 정수장

기후변화 시대가 도래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수도물 서비스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물관리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요즘, 운영 효율은 높이고 인적 오류는 줄이는 새로운 시도가 요구되고 있다.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공급을 위해 전국 정수장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AI 정수장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K-water의 도전을 함께 알아보자.

글 편집실 자료 K-water



3월호 웹진에서  
오디오북을  
들어보세요!

### 격변하는 위기에 대응하는 미래형 정수장의 등장

최근 탄소 배출만큼이나 국제사회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것 중 하나가 바로 '워터리스크'이다. 워터리스크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기록적인 폭우, 태풍, 가뭄, 지하수 고갈 등 물 관련 위험을 말한다. 이는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물의 오염 편차를 만드는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지며, 물관리 여건 변화에 영향을 준다. 안정적으로 수도물을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수도물 관리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K-water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을 물관리에 접목했다. 과학적인 물관리를 통해 국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체계를 구현하고자 수도물 생산·공급 전 과정에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것이 바로 AI 정수장이다.

AI 정수장은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을 활용해 주요 정수처리공정을 자율운영하고, 에너지 관리, 설비 상태 예측을 기반으로 한 사전 예방장비, 지능형 영상감시 등

이 융합된 차세대 기술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정수장 침전지에서는 물속에 있는 침전물을 분리하고, 부유물을 바닥으로 가라앉히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때 탁도에 따라 침전물을 주기적으로 배출하는 것이 중요한데, AI 정수장에서는 침전물의 양을 자동으로 추정해 배출 주기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정수를 위해 약품을 투입하는 과정에도 AI 시스템이 활용되는데, 최적의 약품 투입으로 수질을 균일하게 생산할 수 있다. 이처럼 AI 정수장은 갑작스러운 수질 변화나 물관리 여건 변화에도 '인적 오류(human error)'를 최소화해 수도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실시간 전력량 감시·분석·제어를 통해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비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분석하여 이상 징후를 자율적으로 진단하고,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설비 사고 발생을 재빨리 파악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화성 AI정수장 전경



## 세계 최초 AI 정수장, 대한민국이 보유한 물 분야 초격차 기술

K-water는 화성정수장에 AI 기반 운영체제 도입을 시도해 2022년 4월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화성 AI 정수장은 수돗물 생산-공급 과정 전반에 ICT 및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 최초의 광역상수도 시설이다.

AI 정수장은 폭염으로 인한 녹조나 폭우로 한꺼번에 들어온 오염물질을 즉각 감지하여 빠르게 대응하고, 시간대별 물 수요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에너지 낭비를 줄였다. 또한 설비가 고장 나기 전에 이상징후를 미리 감지해 예방 정비를 하면서 수리 비용도 절감시켰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화성 AI 정수장은 전 세계 물관리 시설 중 최초로 글로벌 등대에 선정되었으며, 공공 물서비스 분야의 최초 사례로서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WEF가 선정한 역대 글로벌 등대 기업 중에서도 가장 선진적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다.

역대 글로벌 등대 수상 기업들이 AI를 단위 공정 자동화, 오류 감지 정도에만 적용했다면, 화성 AI 정수장은 전 공정에 AI를 적용해 사량탐 역할을 하는 복합 의사결정 모델을 구현했다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다.



화성 AI 정수장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한 2023년 '글로벌 등대(Global Lighthouse Network)'로 선정됐다.

이번 글로벌 등대 수상으로 대한민국의 물관리 기술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입증되었으며, AI 정수장을 글로벌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물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초격차 기술을 인정받아 미국, 중국 등 선진국 주도 시장의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돋보인다는 평가도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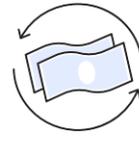
인력 운영 효율성 개선

104%



전력 소비량 감소

10%



설비 유지관리 비용 절감

33%



위기 대응 시간 단축

75%

\*WEF(세계경제포럼) 실사단은 AI 정수장의 운영 성과로 ①인력 운영 효율성 104% 개선 ②전력 소비량은 10% 감소하여 탄소중립에 기여, ③설비 유지관리 비용은 33% 절감, ④위기 대응 시간이 75% 단축되었다고 밝혔다.

출처: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보고서 "Global Lighthouse Network : Adopting AI at Speed and Scale" White Paper(2023.12)

## K-브랜드 AI정수장을 글로벌 표준으로

K-water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AI 기반의 정수장 기술을 올해까지 전국 43개 광역정수장에 구축해 수돗물 생산 운영 혁신을 이어갈 계획으로, 이를 통해 매년 약 95억 원의 생산원가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내의 물산업 핵심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AI 정수장에 대해 독자적인 ISO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것에 착수했다. ISO 국제표준이란 전 세계적으로 두루 쓰는 표준을 만들고 보급하는 것으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다. 별도 표준이 제정되면 글로벌 AI 정수장 플랫폼 설계와 기술 수준의 표준을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AI 정수장 기술의 해외 시장 경쟁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AI 기술을 도입해 국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정적 물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 물산업 분야의 디지털 경쟁을 리딩할 K-water의 도전이 기대된다. 



화성 AI 정수장 제어실 전경





## 물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책임 경영 글로벌 허들 함께 넘을 True Partner

환경과 지속 가능성이 화두로 떠오르며 글로벌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은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 기준을 구체화하며 새로운 무역 장벽을 쌓아 올리는 중이다. 수출 중심의 굴뚝산업 구조를 가진 국내 기업들은 전환에 속도를 내기 쉽지 않다. 이에 공공부문 ESG 경영을 선도하는 K-water가 물산업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글 편집실 자료 K-water



1



2

1. 2023 한국의 경영대상 수상 현장.
2. (좌)제10회 산업정책연구원 CSV-ESG 포터상 ESG 체계성 부문 우수기관상, (우)제36회 KMAC 한국의 경영대상 ESG 경영 부문 대상

### 중소기업·소상공인 성장의 교두보가 되다

지난 2월 15일 K-water는 우리금융그룹과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협력과 ESG 경영실천에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주요 협력 분야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 지원, 탄소중립 이행 및 ESG 경영실천, 해외사업 협력, 자금조달 및 운영 4개 분야다. K-water는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실질적인 금융 지원 혜택과 함께 ESG 경영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ESG 항목진단, 경영전략 수립 등 경영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K-water는 2021년 3월 공기업 최초로 「물특화 ESG 경영」을 선언한 이후, 지난해에는 「2023-2027 K-water ESG 중·장기 추진전략」을 수립, 물 서비스 전 과정에서의 ESG 가치를 실현 및 확산해 왔다. 특히, K-water는 K-테스트베드 운영기관으로서 대한민국 전 산업분야의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에 공공 인프라를 개방하고, 보유 혁신 아이디어에 대한 연구개발과 현장 실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제품에 대한 판로개척 등 물 관련 기술개발과 물산업 육성을 선도해오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국내의 민간기업과 충남 서북부지역에 건설 중인 대산임해해수담수화 시설의 파일럿 플랜트를 테스트베드로 제공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또한 2022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중소기업 ESG 표준가이드라인에 따라 맞춤형 ESG 지표 선정, 업종별 ESG 교육, 역량진단, 현장실사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등 협력 중소기업의 ESG 확산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해 왔다.

### 2년 연속 최우수등급, 모두를 위한 노하우로

K-water는 ESG 경영 확산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2022~2023년 2년 연속 ESG 기관 평가에서 최우수등급 'AA'를 달성하였다. 더불어 체계적이고 탄탄한 ESG 경영을 기반으로 이룬 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2023년 「한국의 경영대상」 대상과 제10회 「CSV-ESG 포터상」 우수기관상을 수상하는 등 ESG 선도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올해 K-water는 그동안 축적된 ESG 경영 역량을 체계적으로 결집하고 유역별 지역 상생·협력 활동을 발굴하고 강화하여, ESG 경영을 보다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K-water는 앞으로 국내 최고 ESG 경영 기업을 넘어 지역과 지구를 살리는 ESG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

# 함께 누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 2024 세계 물의 날



매년 3월 22일은 유엔총회에서 지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올해로 서른두 번째를 맞이하는 세계 물의 날 주제는 '평화를 위한 물의 활용'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물 자원을 아끼고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과 공존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글 편집실

## '세계 물의 날'을 아시나요?

'세계 물의 날'은 유엔총회가 지난 1992년 12월,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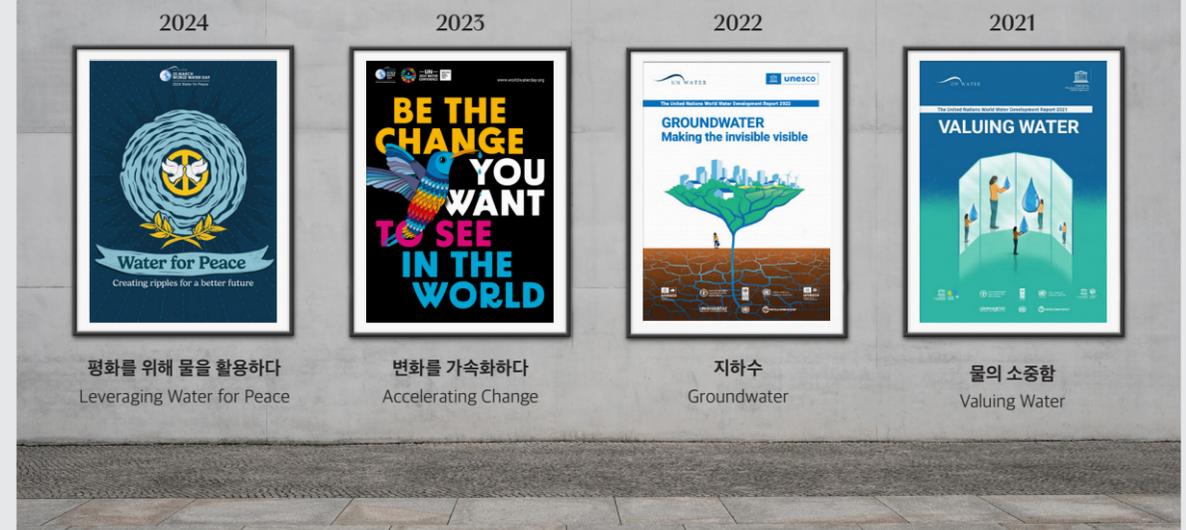
유엔총회는 매년 물관리 비전과 방향성을 홍보하기 위한 주제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는 '평화를 위한 물의 활용(Leveraging Water for Peace)'이다. 정부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한데 모여 물관리 협력을 도모하고, 모두가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음을 중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는 세계 물의 날

우리나라 또한 물이 주는 다양한 가치를 되새기고,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1995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세계 물의 날 국내 주제를 '함께 누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로 정했다. 유엔의 주제인 평화와 공존, 물 활용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모두의 실천과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환경부는 오는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K-water 등 유관 기관들과 한데 모여 국제물산업 박람회, 물관리 정책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실천과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물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근원이다. 물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소중히 하며 지속 가능한 수자원을 개발하는 등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눈에 보는 '세계 물의 날' 포스터



### #1 설 맞이 수도시설 현장 점검 실시



지난 2월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윤석대 사장이 안정적 수도물 공급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충북도 증평현대화사업 현장, 청주정수장, 경기도 광주정수장을 연이어 방문해 수도시설과 운영 전반에 대한 안전을 점검했다. 한파와 해빙이 반복되며 수도시설 운영 환경이 어려워지는 만큼, 선제적 안전 점검으로 누수 등 수도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물 사용이 집중된 설 대목에 민생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K-water는 기후위기와 물 환경 변화에 따라 높아지는 국민 인식에 발맞춰 스마트관망관리와 AI누수탐사, 고도정수처리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고품질의 수도물 생산과 공급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수도시설 노후화로 수도물 품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7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도 관망 정비, 정수장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시설점검](#) [#AI누수탐사](#) [#고도정수처리기술](#)  
[#수도물서비스혁신](#) [#안정적수도물공급](#)

### #2 주한 사우디 대사, 2027년 세계물포럼 유치 지지 요청



윤석대 사장은 2월 16일 사미 알사드한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의 요청으로 만남을 갖고 세계 물포럼 유치 지지와 물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사미 알사드한 대사는 4월 개최될 사우디아라비아 물 포럼 참여와 함께 2027년 예정된 세계 물포럼의 차기 개최지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선정되도록 K-water의 지지를 요청하였다.

이외에도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과 사우디아라비아 수자원 모니터링실 구축을 위한 전문가 파견 및 기술 교류, 사우디아라비아 수도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5월 제10차 세계물포럼에서 론칭할 '아시아지역 물 어젠다 및 프로젝트 보고서' 발간 등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세계물포럼유치지지](#) [#사우디아라비아](#)  
[#물관리기술교류](#) [#물분야협력확대](#)

### #3 우리금융과 '민생 경제 회복·탄소중립' 전략적 연대



K-water는 지난 2월 25일, 우리금융그룹과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협력과 ESG 경영실천에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주요 협력 분야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 지원, 탄소중립 이행 및 ESG 경영실천, 해외사업 협력, 자금조달 및 운영 등 4개 분야이며, 양 기관은 지속해서 세부 협력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K-water는 2018년부터 물 산업 분야 지원·육성을 위해 혁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창업·펀딩부터 해외 판로 개척까지 맞춤형 성장지원 플랫폼 역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K-water의 이러한 노력에 기업금융 분야의 강점을 지닌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힘을 모아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물 분야 협력 기업에 대출금리 및 한도 우대 등 금융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상생지원](#) [#탄소중립이행](#)  
[#우리금융그룹](#) [#성장지원플랫폼](#)

### #4 기적을 넘어 기회로 '2024 시화호의 해' 선포



지난 2월 22일 경기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3개 지자체와 K-water가 '시화호권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4 시화호의 해'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올해를 '시화호의 해'로 선포하는 공동선언문 발표와 함께 시화호가 지닌 무한한 꿈과 도전의 의지를 담은 공동브랜드 슬로건 '기적을 넘어 기회로!'를 활용한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시화호권 정책협의회는 올해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아, 시화호의 환경적, 역사·문화적, 사회·경제적 가치에 주목하고 비전을 함께 공감하며 '시화호 조성 30주년 기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오는 10월에 개최 예정인 시화호 조성 30주년 기념사업은 환경오염을 극복해낸 시화호를 '세계 속의 시화호'로 도약시키기 위한 공동사업이다. 환경오염을 극복한 시화호를 지속 가능한 발전, 지역사회 협력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키우겠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해 국내 최대 규모 인공호수인 시화호를 시민들이 찾고 누릴 수 있도록 해양 레저 체험과 축제, 전시를 기획할 계획이다.

[#시화호조성30주년](#) [#시화호회복](#)  
[#세계속의시화호](#)

# 봄 햇살 아래 함께한

# 도마 만들기 클래스



도마

영·섬경영처  
오은하 대리  
김하윤 대리  
임하영 대리  
전남지역협력단  
주영은 대리



1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든든한 존재가 된 네 명의 동료.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에게는 없어서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서로의 시간이 더욱 무르익고 깊어지길 바라는 네 명이 오랜만에 색다른 곳에서 뭉쳤다. 도마 만들기 클래스를 통해 우정의 깊이가 더욱 무르익었던 시간을 소개한다.

글 전해정 사진 김은주



kwater.or.kr/foa 물, 자연 그리고 사람

## 운명의 데스티니, '하영은하윤' 크로스!

화창하고 맑은 2월의 어느 날, 환한 미소가 담긴 네 명의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영·섬경영처 김하윤 대리, 오은하 대리, 임하영 대리 그리고 전남지역협력단 주영은 대리다. 이들 네 명은 작년 한 해 동안 영·섬경영처에서 함께 근무했었다. 당시 서로를 살뜰히 챙기고 이해하면서, 우정을 돈독히 다져왔었다. 그리고 올해, 주영은 대리가 타 부서로 이동하게 되면서 자주 만날 수가 없었다. 매일 같이 함께 있다가 갑작스러운 빈자리에 아쉬움이 컸는지, 가끔 퇴근 후 만나 일상을 공유하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해 왔다. 하지만 이 전만큼 얼굴을 마주하며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오은하 대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체험을 통해 특별한 추억 만들기'를 제안했고, 나머지 셋이 흔쾌히 응했다. 그리하여 '어느 멋진 날' 코너에 사연을 보내고, 광주의 한 목공방에서 도마 만들기 클래스에 도전하게 된 것이다. "저희 네 명의 이름이 '하영은하윤'으로 하나로 이어진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름만 봐도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운을 타고난 것처럼요. 우리는 이것을 '운명의 데스티니'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신청자 오은하 대리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활짝 웃는 모습들이 어쩐지 닮은 듯 보인다.





### 다양한 나무처럼 개성 뚜렷한 네 사람

목공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실제 체험은 처음이라는 네 사람. 나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양한 형태의 도마를 살펴 보며 '어떤 도마를 만들까' 상상하는 모습이 사뭇 진지하다. 도마도 유행이 있다는 설명에 초보자들은 대부분 사각 형태를 많이 만든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도움이 되었던 걸까. 오은하 대리는 "신혼이거든요. 남편과 와인 한잔할 때, 치즈를 예쁘게 플레이팅할 수 있는 예쁜 도마를 만들고 싶어요"라며 확고한 콘셉트를 이야기한다. 그러자 김하윤 대리, 임하영 대리, 주영은 대리도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도마 고르기에 폭 빠져들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원하는 수종의 나무를 고르고, 본격적으로 도마 만들기 클래스가 시작됐다.



### 아름드리나무처럼 서로의 우정이 깊어지길

샌딩, 각인 후 오일 작업까지 하면 마무리 단계다. 이로써 도마 만들기 클래스는 막을 내린다. "사포질만 한 것 같은데 도마가 완성되니 뿌듯하고 자꾸만 보게 된다"는 주영은 대리의 말에 나머지 세 사람도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직접 만들었다는 뿌듯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플라스틱이나 실리콘 도마보다 칼집 나는 일이 훨씬 적어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말리기만 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공방 클래스 선생님의 말에 다들 눈빛이 반짝이며 당장이라도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샘솟는다. 오늘의 결과가 마음에 들었는지, 다시 또 모여 빠른 시일 내에 다른 것도 만들어 보자는 네 사람이 귀엽기만 하다. 오랜만에 만나 도마와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까지 챙겼던 특별한 날로 남았다. ✨



### Mini Interview



임하영 대리

오늘 이렇게 새로운 공간에서 좋아하는 동료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하영은하윤' 멤버들에게 이런 이벤트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얼른 다른 클래스에서도 성취감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싶네요!



주영은 대리

엄마가 '집에 도마 많은데 무슨 도마를 만드냐'고 하셨거든요.(웃음) 집에 가져가면 잘 만들었다고 달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게 먼저 용기 내준 은하 대리에게 고맙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나무 도마처럼 우리도 오래 함께할 수 있는 동료로 남고 싶습니다.



오은하 대리

손잡이가 있는 도마를 만들었는데요. 선생님께서 왜 초보자는 힘들 것이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SNS에서 예쁜 도마를 볼 때마다 저런 건 어디서 샀을까 궁금했는데요. 제 손으로 만들다니, 정말 뿌듯합니다. '하영은하윤' 멤버들을 초대해서 함께 플레이팅하고 와인 한잔하고 싶네요.



김하윤 대리

칭찬을 받긴 했지만, 도마 만들기를 쉽게 봤었는지 사포질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포질을 많이 해야 하는지도 몰랐고요. 하지만 막상 결과를 보니 뿌듯함이 엄청나요. 이렇게 힘든 것을 해냈으니 앞으로 못 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새해 다짐을 작심 삼일로 놓치고 싶지 않아요!



새해가 되면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새로운 다짐을 하기 마련이다. 이는 새해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 나를 분리하고, 동기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새해에 했던 다짐이 서서히 잊혀 가는 3월, 첫 다짐을 떠올릴 방법을 소개한다.

글 오미영(닥터스 심리아카데미 대표원장)

“ 새해가 되고 다짐했던 일들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 같아요. 보다 지속적으로 다짐했던 것들을 지키고 이루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

새해에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새 출발 효과(fresh-start effect)' 때문이다. 모두에게는 '시간적인 랜드마크'가 있다. 새해가 바로 대표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다. 하지만 실제로 신년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은 10%도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것처럼, 새해의 다짐들은 대부분 작심삼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새해부터는 고단백 식단에 다양한 채소를 곁들여서 식사하고, 정기적인 운동을 하겠다고 결심하지만, 사흘을 넘기기가 어렵다. 처음 며칠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더 많다. 새해가 되고 다짐했던 일들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립니다.

마음이 힘든 고민이 있나요? 혼자 간직했던 고민에 상담이 필요하다면 질문을 보내주세요. 전문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담해드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첫 번째,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운 습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일상의 대부분은 기존의 습관과 같은 루틴대로 진행된다. 습관적인 행동은 자동적,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기존의 습관은 쉬운 행동에 속한다. 하지만 신년 다짐은 의도적인 행동으로서, 기존의 습관과 다른 행동을 선택할 때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뇌에 변화가 일어나려면, '일정 기간 의식적으로' 반복된 행동을 해야 한다.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면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 행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작심삼일을 120번 하면 1년이 된다. 처음 다짐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행동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두 번째, 작고, 실현 가능하며, 최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

부자 되기, 10kg 체중 감량하기 등과 같은 모호하거나 무리한 목표는 삼가야 한다.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세우면 자포자기하거나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매달 10만 원 더 저축하기, 저녁 9시 이후에 야식은 먹지 않기와 같이 구체적이고 작은 범위의 도달 목표를 설정해 보자. 보다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횟수가 더 늘어날 것이다.

### 세 번째, 자신의 결심과 동기를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사람과 함께 도전하기.

예를 들어, 주기적으로 운동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면 직장인 등산 동호회에 가입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영어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스터디 모임을 찾아보자. 이와 같이 함께 목표에 도달할 이들과 시간을 공유한다면 다짐했던 일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게 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혼자 다짐을 이루고자 한다면 의지가 쉽게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함께 목표를 향하는 사람이 곁에 있고, 서로를 모니터링해줄 수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 Counselor. 오미영



고려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졸업,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심리 레지던트 수료, 한양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교수 및 임상심리 수련감독자 역임 등을 거쳐 현재 닥터스 심리아카데미 대표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내 아이 설명서> 등이 있다.

# Q 물을 많이 마시면 피부가 정말 좋아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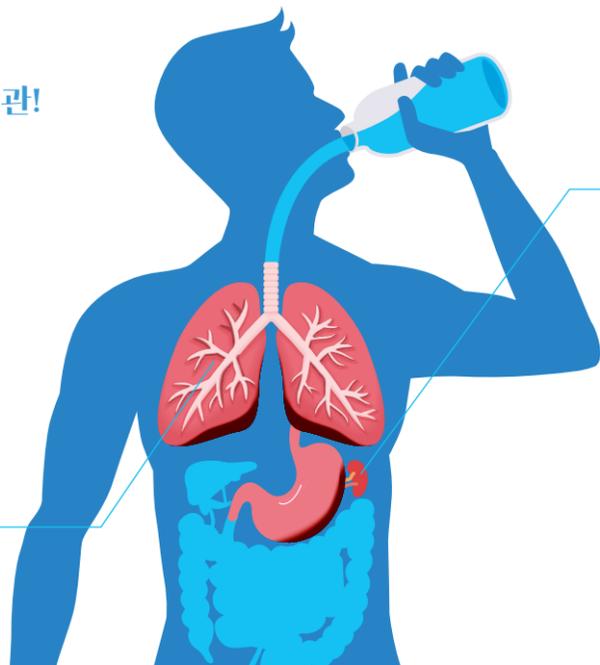
글 문수민

A 물을 충분히 마시면 노폐물 배출, 혈액 순환 등에 도움이 되어 콜레스테롤과 혈관 지방 제거에 효과적이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물을 충분히 섭취할 경우 피부도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없다. '피부가 안 좋다'라고 말하는 근거는 눈에 띄는 각질, 주름 등이다. 이는 몸의 노폐물이나 독소가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했을 때 생기는 증상 중 하나이다. 물을 마시면 피부가 좋아진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으나 적당한 물 섭취로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체내에 수분이 적절히 쌓이면 피부 고민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피부관리를 위해 중요한 것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 몸의 수분대사를 원활히 하는 것이다. 수분대사는 몸속 찌꺼기를 배출하는 역할을 통해 체내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말한다. 수분대사가 원활한 몸은 수분이 피부의 표피층까지 원활하게 전달되어 피부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겠지만, 수분대사가 원활하지 않다면 물을 아무리 많이 마신다고 한들 피부는커녕 몸속 구석구석 수분이 필요한 곳에 물이 온전히 저장되기 어렵다. 수분대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수분을 몸 구석구석으로 전달하는 기관인 비장(소화기)과 폐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비장 건강에는 곡류, 콩류, 과일, 채소 등이, 폐 건강에는 도라지, 무, 오리고기 등이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과 금주·금연, 스트레스 관리,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피부관리의 핵심이다. \*

## 피부가 좋아지는 습관! 몸속 수분대사를 높이는 방법



폐에 도움이 되는 음식  
도라지, 무, 오리고기 등



비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  
곡류, 콩류, 과일, 채소 등



생활방식 개선  
충분한 휴식, 금주·금연, 스트레스 해소

참고  
1.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2. 헬스조선 '물 8잔 마시면 정말 피부가 좋아질까?'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립니다.

물과 건강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드립니다. 평소 물과 관련된 건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이 있다면 응모해주세요. 채택 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하루 종일 숏폼 보는 나, '도파밍'일까?



우울감

집중력 저하

불안

인지기능 감퇴

충동적 감정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 그러나 지나치게 분비될 경우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 최근에는 도파민의 과다 분비를 즐기듯 수집하는 현상을 말하는 '도파밍'이라는 단어가 주목받고 있다.

글 전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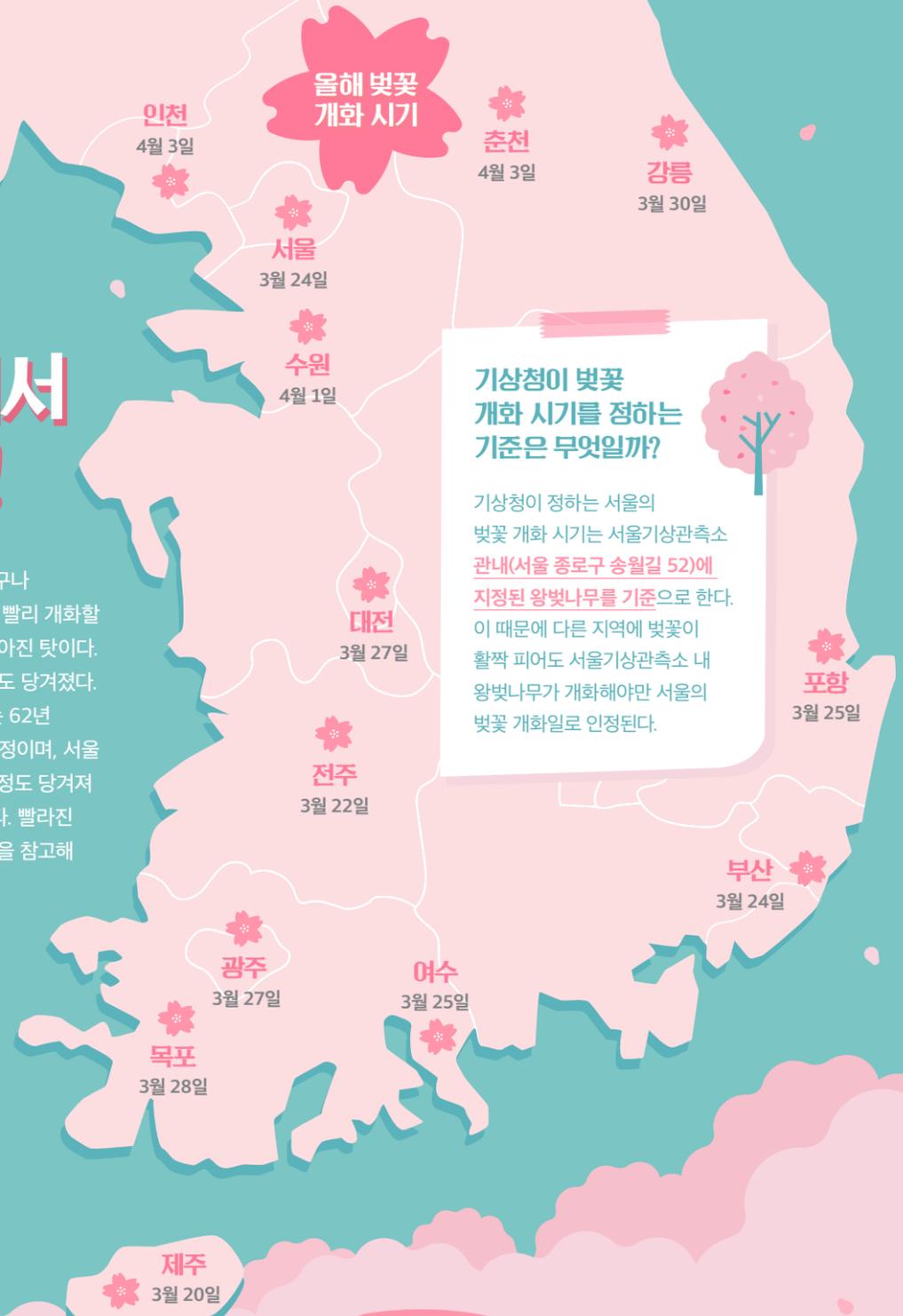
숏폼 콘텐츠가 여전히 대세다. 전체 광고·홍보용 동영상의 73%가 2분 이하로 제작된 숏폼 형태이며, 10대의 56%가 10분 미만의 동영상을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다. Z세대를 중심으로 숏폼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신조어도 생성되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도파밍'이다. 도파밍은 즐거움을 느낄 때 몸에서 분비되는 '도파민'과 게임 내에서 물건을 수집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 '파밍(Farming)'이 합쳐진 단어다. 숏폼 같이 극단적인 재미를 끊임없이 수집하려는 행위를 말하며,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도파밍이 계속될 경우, 즐겁다고 느낄 수 있으나 파킨슨 병 등 파킨슨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파킨슨 병은 즉각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에 노출되면서 뇌의 전두엽이 반응하고, 반복적으로 노출될수록 내성이 생겨 일상생활에 흥미를 잃고 파킨슨 터지듯 더욱 큰 자극을 추구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증상이 지속되면 우울감이나 불안, 충동적 감정, 인지 기능 감퇴, 집중력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도파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도파민 디톡스'가 필요하다. 과다 공급된 도파민 자극을 낮출 수 있다. 이외에도 자연의 소리를 담은 백색소음 등을 통해 뇌가 쉬 수 있도록 균형을 이루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다. \*

# 벚꽃 아래서 기다릴게!

분홍빛 벚꽃이 흐드러져야 봄이 왔구나 실감한다. 올해 벚꽃은 평년보다 더 빨리 개화할 전망이다. 지구 온난화로 겨울이 짧아진 탓이다. 이에 따라 봄꽃 축제들의 개최 시기도 당겨졌다. 대표적인 벚꽃 축제인 진해군항제는 62년 역사상 가장 이른 시기에 개최될 예정이며, 서울 여의도 윤중로 벚꽃 축제도 일주일 정도 당겨져 3월 말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빨라진 개화 시기와 당겨진 벚꽃 축제 일정을 참고해 이른 봄을 마음껏 즐겨보자. \*

글 문수민 참고 매일경제



## 3월 꽃 축제



진해군항제

3월 22일~4월 1일



양산 물금벚꽃축제

3월 30~31일



광양 매화축제

3월 8일~3월 17일

### 기상청이 벚꽃 개화 시기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기상청이 정하는 서울의 벚꽃 개화 시기는 서울기상관측소 관내(서울 종로구 송월길 52)에 지정된 왕벚나무를 기준으로 한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에 벚꽃이 활짝 피어도 서울기상관측소 내 왕벚나무가 개화해야만 서울의 벚꽃 개화일로 인정된다.

# 산을 타러 가십니까?



# 산을 태우러 가십니까?

불법 흡연과 취사, 산림을 없애는 무기입니다. 산을 타러 가셨다면, 산은 태우지 마세요



최○영 010-\*\*\*\*-8198



최○민 010-\*\*\*\*-1674



강○우 010-\*\*\*\*-3733



이○림 010-\*\*\*\*-7498

<물, 자연 그리고 사람>

2월호 이벤트  
당첨자 안내

2월호 '저탄소 생활 실천 ON' 챌린지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첨을 통해 선정한 정성 가득한 작품을 소개합니다.  
3월호 '종이팩 분리배출 ON' 챌린지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외출 시 콘센트 뽑아 두기

#자전거 이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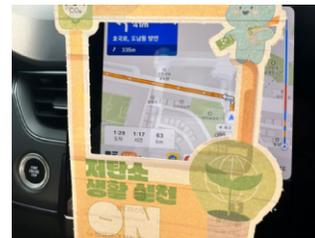
#이동 경로 미리 파악하기



황○연 010-\*\*\*\*-2273



한○미 010-\*\*\*\*-3236



김○덕 010-\*\*\*\*-6321



김○빈 010-\*\*\*\*-0151



조○동 010-\*\*\*\*-8872



황○성 010-\*\*\*\*-1463

#kwater물산업 육성 좋아요  
이벤트 당첨자 발표  
이벤트 경품 커피 음료 기프티콘 10명  
@happyson9424 | @khw\_daily | @cjhjoo90  
@nada\_0po | @naaa\_0ing | @neonawoori  
@zz\_ii\_zz\_oo | @rong.teacher\_  
@kwakbk1976 | @nabilove85

2월호 사보와 함께하는  
가로세로 낱말퀴즈  
이벤트 경품 이슬 핸드크림 2명  
탁○우 010-\*\*\*\*-7933  
황○민 010-\*\*\*\*-3999

2월이니까 너랑 나랑 돌이서♥  
웹진 구독 이벤트 당첨자 발표  
이벤트 경품 영화 예매권(1인 2매) 5명  
최○웅 010-\*\*\*\*-8879  
강○창 010-\*\*\*\*-5306  
김○래 010-\*\*\*\*-0973  
강○림 010-\*\*\*\*-7321  
설○숙 010-\*\*\*\*-9951

※3월 10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2-6731-0785로 전화주세요.

방울이와 함께 하는  
종이팩 분리배출 ON 챌린지



우유팩 등 종이팩은 양질의 재활용 자원이지만 잘못된 분리배출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올바른 분리배출로 종이팩에 새로운 정의를 더하는 '종이팩 분리배출 ON' 챌린지에 동참해보자.



1~6월호까지 모든 방울이 딱지를 모은 분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 종이팩의 놀라운 재탄생, 종이팩 분리배출 ON  
38페이지의 'ON 챌린지' 내용을 참고해 일상 속 올바른 종이팩 분리배출을 실천하고  
환경 보호에 동참해 보세요. 위의 토퍼를 이용한 인증샷을 통해 실천 내용을 찍어서  
보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분에게 문화상품권 1만 원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경품 문화상품권 1만 원권 10명  
참여 방법 QR코드를 통해 인증샷 남기기  
접수 마감일 3월 20일 발송일 3월 31일경



# 설레는 봄의 시작! K-water와 #소통하기

매달 더욱 알차고  
다채로운 소식으로 꾸며지는  
K-water SNS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튜브 [www.youtube.com/kwatertv](http://www.youtube.com/kwatertv)

## 이게 바로 안동 감성이라는 거야

| 안동 야경Timelapses | Night View | [사운드 오브 워터]

이른 봄의 감성을 담은 이번 사운드 워터는 안동 편입니다!  
감성 가득한 반짝이는 빛으로 거리를 수놓는  
안동의 풍경을 함께 감상해 볼까요?

#사운드오브워터 #경상북도 #안동 #안동댐 #안동루 #낙동강변  
#월영교 #웨이브투어스 #미니어처 #타임랩스 #Timelapse



블로그 [blog.naver.com/ilovekwater](http://blog.naver.com/ilovekwater)

트위터 [twitter.com/Kwater\\_twitt](https://twitter.com/Kwater_twitt)

페이스북 [www.facebook.com/kwaterworld](http://www.facebook.com/kwaterworld)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kwater\\_official](http://www.instagram.com/kwater_official)

**입춘의 의미와  
풍습 알아보기!**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인 입춘이  
지나고 나니, 확연히 날씨가  
따뜻해졌는데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의 의미와 풍습을 알려드립니다.

**수분이들!  
그동안 수고 많았어**  
**졸업을 축하해**  
#졸업식 #졸업식꽃다발  
#새로운시작 #응원 #좋아요

**K-water-독일항공우주청**  
물재해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수자원위성' 개발 협력  
#독일항공우주청 #수자원위성  
#영상레이더

**혹시 그거 알아?  
수분이 넘 예쁘넵**  
방울이표 플러팅 모음zip  
#방울이 #짤 #인형짤 #플러팅  
#플러팅짤 #플러팅모음



# EVENT 나의 반려동물을 소개합니다!



## 전~국! 반려동물 자랑 타임!

또다른 가족, 반려동물과의 소중한 추억을 담은 사진을 자랑해주세요!  
반려동물과 함께한 사연, 반려동물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사진과 사연은  
<물, 자연 그리고 사람> 4월호에 게재됩니다.



이벤트 경품 반려동물 용품  
참여 방법 QR코드를 통해 설문에 참여하기  
접수 마감일 3월 20일 발송일 3월 31일경  
※당첨자는 개별 연락 드립니다.

